

보인다! **10.0**

#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2025  
보인다 시리즈  
보인다.com

|      |      |                        |
|------|------|------------------------|
| 보인다! | 1.0  | 고등학교 과목 안내서            |
| 보인다! | 2.0  |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설계     |
| 보인다! | 3.0  | 한눈에 보는 수시전형            |
| 보인다! | 4.0  | 학생부종합전형 사례집            |
| 보인다! | 5.0  | 대학 면접전형 길라잡이           |
| 보인다! | 6.0  | 한눈에 보는 정시전형            |
| 보인다! | 7.0  | 2026학년도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분석 |
| 보인다! | 8.0  | 학부모 진로·진학Q&A 100선      |
| 보인다! | 9.0  | 대학 전공학과 길라잡이           |
| 보인다! | 10.0 |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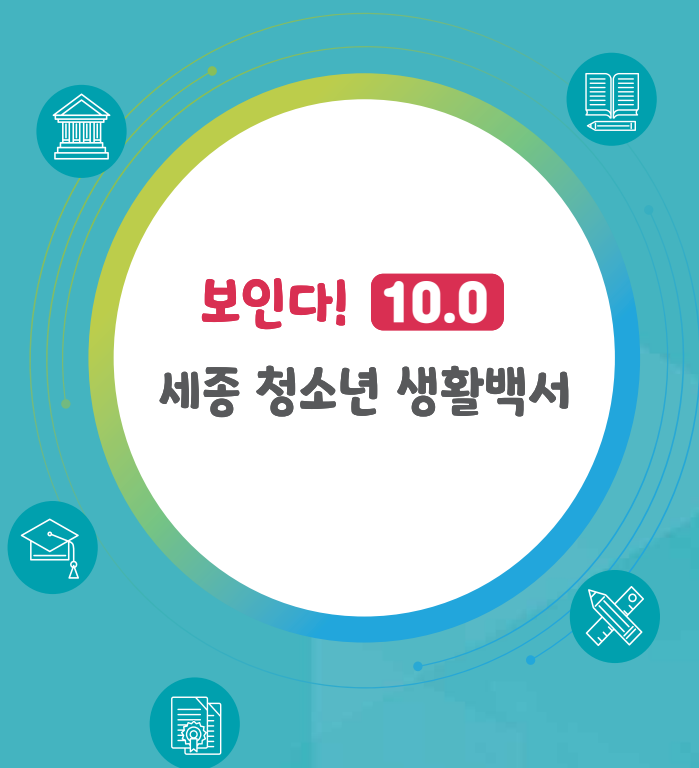
# CONTENTS | 목 차

- 
- ① 세종우리누리란? ..... 5
  - ② 과목별 공부법 ..... 9
  - ③ 교양 칼럼 ..... 55
  - ④ 세종우리누리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학교 ..... 105



**보인다! 10.0**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1부

# 세종우리누리란?







## ‘세종우리누리’에 관하여



### 세종우리누리는 어떤 단체인가요?

세종우리누리는 2018년 창립된 교육봉사단체입니다. 당시 학교들이 개교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도시들과 달리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선배 없는 학교의 선배가 되자.”는 모토로 지금까지 달려온 교육봉사 멘토단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많이 발전하고, 각 학교에도 좋은 선배들이 생겼지만, 저희 세종우리누리는 여전히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말과 방학 중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종우리누리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종우리누리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단체이니만큼, 면접을 통해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심히 검토하여 멘토를 선발합니다.

저희가 멘토 모집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지점은, 자신의 학과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였는지, 후배들을 위해 어떤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세종우리누리 활동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입니다. 그외에도 재학 중인 ‘학과’, 교육 관련 경력, 임원직 신청 여부 등을 참고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선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 세종우리누리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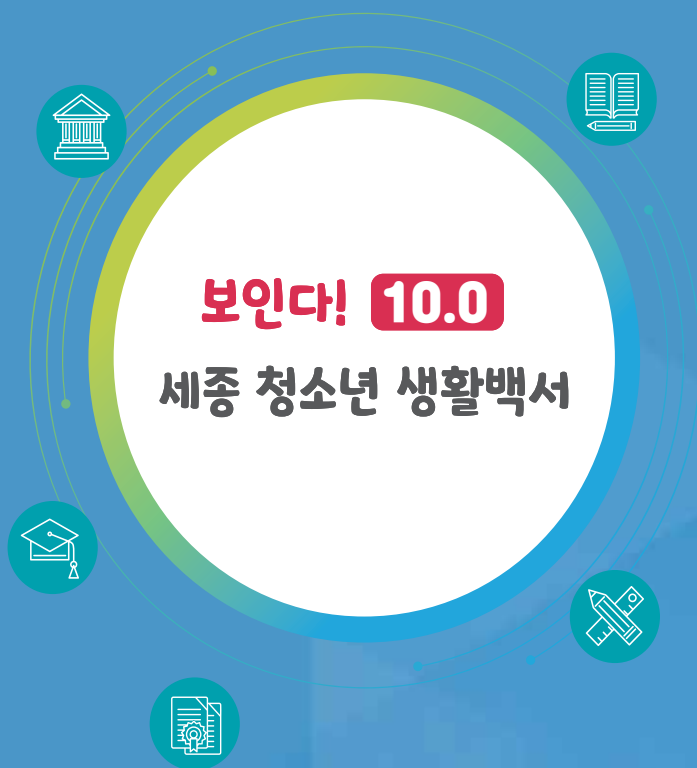
세종우리누리는 교육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여름 개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대학생 상담 부스를 전담하여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매 방학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진로진학 멘토링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멘토링을 진행하며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양 토크 멘토링」을 통해,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교양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에 진행되는 대입 면접 멘토링과 세종 우리누리의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1년을 돌아보는 세종우리누리 총회,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만드는 학습지원위원회 활동, 다양한 계열의 학생들이 만나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자 시작한 「아고라 프로젝트」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이 세종우리누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인다! 10.0**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2부

## 과목별 공부법



## 국어 영역 공부법 - 독서와 문학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장 동 휘

수능 국어영역에서 ‘독서와 문학’을 막론하고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다른 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독해력’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수험생들이 국어영역 지문을 보며 느끼는 독해의 압박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었다는 누구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은 잘 나오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책을 읽자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독서 목록이 빠졌으며, 사실 공부하기도 바빠 책 읽을 시간은 나지도 않고...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지금 당장 책을 읽어 시험을 위한 독해력을 기르기엔 무리가 있으며, 반대로,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은 학생이 시험을 위한 수준 높은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정답이라면, 모든 1등급 학생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량을 쌓아 왔어야 할텐데, 또 그건 아닙니다. 분명 1등급 학생 중에서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미약한 독서 경험에 비해 뛰어난 독해력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독해력을 키우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후자들의 방법론을 고찰해 보는 것이 성적 향상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독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텍스트를 접해 보았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공교육 과정을 밟은 학생들이라면, 글을 ‘잘’ 읽을 정도의 텍스트를 다루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모두 ‘무의식에 내재화된 개개인의 독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인터넷 강의나 과외를 통한 공부와 독학 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많은 학습 칼럼이 이미 제시하고 있듯, 수능 국어에 있어서 이 무의식과 추후 등장할 의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 독학

독학의 경우,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독해법을 성실히 지문을 풀어냄으로써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자신의 독해법을 의식적으로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며, 근거를 찾았던 습관 내지 방식을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의식의 영역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신의 수준에서 적당히 어려운 지문을 다양한 제재로 2~3개 준비하고, 풀어 본다.
2. 채점한 후, 오답을 진행할 때, 자신이 보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조를 찾는다.
3. 그 구조들에 이름을 붙이고, 이후 국어 공부를 할 때 의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4. 국어에 통달한다.

당연히 1~3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무엇보다 두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어떤 구조가 빈번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 독해법이 그것을 날카롭게 짚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자신의 독해법이며, 그것을 우리는 연마해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독해법은 자신이 본래 사용하던 방식이므로, 체화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다만 어려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그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라고 적긴 했지만, 학원 수업이나 과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강의는 독학과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독학이 자신의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면, 인터넷 강의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죠. 보통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이미 자신의 독해법을 의식으로 가져왔지만, 불안한 마음에 듣는 경우
- ②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독해법을 의식화하지 못하는 경우
- ③ 독해법의 의식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진 않았지만, 시간적 압박으로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

①에 속하는 학생들은 사실 인터넷 강의를 듣든, 듣지 않든, 어떻게 듣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방법이 있는 이상, 인터넷 강의는 그것에 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②, ③의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이 ③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①을 제외한 두 경우 모두,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한 독해법을 모종의 이유로 의식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독해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올 수 없으니, 밖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강의에 기대하는 것은 지문에 타당하게 적용되는 독해법들입니다. 강사들의 독해법을 인터넷 강의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의식 속에 육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후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나는 갈림길입니다.

의식의 영역에 들어온 타인의 독해법은 금방 휘발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무언가를 통해 활용되어야 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휘발’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철수는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며,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요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유튜브에 있는 여러 레시피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그것을 한 번 본다고 해서 곧바로 혼자 힘만으로 맛있는 제육볶음이나, 두부조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하려고 해도, 몇 번이고 ‘설탕은 얼마나 넣지, 식초를 넣었었나?’ 하면서 영상을 뒤로 돌릴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계속해서 휘발되니까요!

이 예시에서 철수는 반찬을 위한 방법을 아직 체화할 정도로 반복하지 않았으므로, 쇼츠로 본 레시피는 금방 휘발됩니다. 물론, 수능 국어가 이거랑 같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능 국어와 유튜브를 보며 반찬을 만드는 것은 다르죠. 반찬은 반찬 종류마다 레시피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수능 국어라는 분야에는 훨씬 복잡하고, 체화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방법론이 존재하니까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인터넷 강의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금방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의식의 영역에 육여넣은 타인의 독해법은, 반드시 꾸준한 문제 풀이와 적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독해법인 것처럼 무의식에 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터넷 강의를 통한 국어 공부’라고 부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인터넷 강의 시청’에 불과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본 과학 유튜버의 쇼츠를 통해 습득한 지식이 금방 휘발되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습득한 타인의 독해법도 금방 휘발될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 종합

따라서 문제 양치기는 (제가 생각하는 한) 수능 국어를 위한正道(正道)입니다. 다만, 그 양치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수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한 공부도, 타인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독학도, 시험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실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위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성실함과 그것에 기반한 문제 양치기가 필수적입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터넷 강의를 벌써 저~~기까지 들어버린 친구도 있으며, 어떤 친구는 인터넷 강의무용론을 주장하며 혼자서만 마~~~악 달려 나가기도 하니 그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든, 성실함과 유의미한 노력(자신의 독해법이든 타인의 독해법이든, 그것을 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국어 성적의 향상은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 국어 영역 공부법 - 화법과 작문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장 동 휘

‘화법과 작문’ 공부는 사실 참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자니, 그 시간이 아깝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자니, 나중에 가서 틀리면 배가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사실 화법과 작문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기초에서 중요한 점은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는 것에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더 어려운 언어와 매체와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화법과 작문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화법과 작문을 문법 공부하듯, 따로 공부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화법과 작문을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실상은 피상적이고 쉬운 독서입니다. 어떤 복잡한 추론이나 정보 처리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대화’와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작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적어도 17년 이상을 살아오며 다른 한국인들과 소통해 왔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화법과 작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푸는 것은 독서를 공부하며 따라올 독해력의 향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빠르게 풀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화법과 작문을 ‘모의고사’라는 환경 속에서 빈번히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모의고사를 풀며 전체적인 시간의 압박 가운데 있는 화법과 작문을 접해야 합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전략을 세워보며, 수정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부디 중요한 공부 대신 화법과 작문에 과한 시간을 투자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신이 다른 건 쉽고 잘 맞는데, 유독 화법과 작문만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일 적절한 양의 문제를 제공하는 ‘매삼비 시리즈 - 화법과 작문편’을 구매하여 성실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어 영역 공부법 - 언어와매체

세종우리누리 14기 멘토 이 채 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학생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게 유리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기에 그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문학과 비문학 영역에서의 문제 풀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맞는 과목을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기피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언어, 즉 문법 파트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내신 혹은 선행학습으로 문법의 기초가 잘 되어 있거나, 높은 표점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언어와 매체는 화법과 작문보다 난이도가 높고,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량도 훨씬 더 많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말 솔직하게, 높은 백분위为目标인 상위권 학생이라면 언어와 매체 선택을 추천 드리지만, 국어 등급이 낮거나, 언어와 매체에 투자할 공부 시간이 많이 없는 학생에게는 화법과 작문을 추천 드립니다. 표점 면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틀리는 순간 언어와 매체 선택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꼭 시간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신에서 언어와 매체 영역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언어와 매체, 특히 언어 영역에서 문법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고정된 출제 개념은 있으나 예시가 무한히 바뀌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학이 아닌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더라도, 강사가 개념은 설명해줄 수 있으나 시험에 나오는 모든 예시를 다 예측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 이해와 함께 많은 예시를 접해보는 문제 풀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이해 + 다양한 문제 풀이 + 오답 분석 + 예시 누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언어와 매체는 이처럼 확실한 개념 이해와 문제 풀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아 공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은 내신에서 언어와 매체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개념의 기초를 미리 다져놓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 과목은 개념 학습 단계부터 학기 중에 공부하기에는 시간 부담이 큼니다. 따라서 방학시간을 이용해 1-2번은 개념을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3이 되기 전에 개념을 미리 학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는 언어 공부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리 : 암기 + 정확한 이해(고3 전까지)
2. 문제 풀이(기출) + 오답노트(단권화)
3. 실전 대비 : 고난도 n제 풀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개념의 기초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불규칙 활용 등 암기해야 하는 파트는 꼭 철저히 노트에 적어가며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익힌 개념을 기반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매체는 나올 수 있는 예시가 무한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념서에는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들, 낯선 예시들을 문제풀이 단계에서 습득해 내셔야 합니다. 이때, 틀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의 개념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오답이 나왔다면, 해설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답과 함께 해당 부분 개념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문제풀이 단계에서 오답노트를 통해 자주 틀리는 개념 및 유형, 낯선 예시들을 정리해 둔다면 시험 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새로운 예시에 당황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 철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념 및 문제풀이 단계로 기반이 다져졌다면, 고3 때는 세 번째 단계, 고난도 n제들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보다는 유형화된 경향이 덜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패턴을 익힌 후,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체는 따로 시간을 들여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체를 풀 때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풀어내는 연습을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매체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요...

꼭 개념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셔서 언어와 매체에서 만점 맞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 팁은 참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교재들을 추천 드리자면, 개념 학습 단계에서는 ‘유대종 언어와 매체총론’, 기출은 ‘마더텅’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그 외 EBS 교재, 이감 언어와 매체 n제 등 자료들이 정말 많으니까 꼭 여러 예시들을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 수학 영역 공부법 - 공통 수학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이원진

## 시작하기 전에...

수학은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역시 가장 높은 과목으로 꼽힙니다. 20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공통 수학 I, II(기존 수학 상, 수학 하에 해당)를 배우고, 내년부터는 대수와 미적분 I(기존 수학 I, II에 해당)을 차례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편의상 현행 과목의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학 I (대수)

수학 I을 구성하는 단원은 크게 ① 지수와 로그, ② 삼각함수, ③ 수열이며, 이 세 단원은 모두 '수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 과목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개념과 공식의 성립 조건을 엄밀하게 따지지 않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고2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천천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수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자'는 각오로 정리하면서 수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개념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1. 지수와 로그

'매우 큰 수'를 간편하게 다루기 위해 도입된 log라는 기호를 이해시키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 학습했던 지수법칙과 제곱근의 범위가 확장되며 시작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수와 로그의 성립 조건(밑과 진수의 조건 등)을 학습 초반부터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면서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임을 이해하고, 정의역과 치역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미리 알아야 하는 개념

중3: 제곱근, 지수법칙

수학 상 (공통수학 II): 도형의 평행이동

수학 하 (공통수학 II): 함수(정의역, 치역, 역함수)

### 2. 삼각함수

예각에 대해서만 학습하던 삼각비의 개념을 일반각에 대해 정의된 삼각함수로 확장하는 단원입니다. 다양한 공식이 등장하지만, 이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단위원 위의 점으로 삼각함수를 표현하고 이해한 뒤 규칙성을 찾아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도 단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이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어 모든 실수에 대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기성, 그래프의 확대·축소, 대칭성과 평행이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배우는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에서는 sin 법칙과 cos 법칙을 단순히 암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모두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 정의에서 유도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리 알아야 하는 개념

중3: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원주각

★ 풀어봅시다.

아래 문제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pi$ 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4점]

(가)  $3 \sin A = 2 \sin B$

(나)  $\cos B = \cos C$

①  $\frac{32}{9} \sqrt{2}$       ②  $\frac{40}{9} \sqrt{2}$       ③  $\frac{16}{3} \sqrt{2}$

④  $\frac{56}{9} \sqrt{2}$       ⑤  $\frac{64}{9} \sqrt{2}$

아래는 각각 ① cos 법칙과 ②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풀이인데 sin 법칙을 사용해 길이의 비를 구하는 방식은 같으니 중간부터 구분지어 풀이를 작성하겠습니다.

**풀이**

삼각형 ABC에서  $\overline{BC}=a$ ,  $\overline{CA}=b$ ,  $\overline{AB}=c$ ,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라 하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pi$ 이므로  $\pi R^2 = 9\pi$ ,  $\therefore R = 3$

사인법칙  $\frac{a}{\sin A} = \frac{b}{\sin B}$ ,  $\frac{\sin B}{\sin A} = \frac{b}{a}$  에 조건 (가)를 적용하면,  $\frac{\sin B}{\sin A} = \frac{b}{a} = \frac{3}{2}$

$a = 2k, b = 3k \quad \dots \dots \textcircled{7}$

조건 (나)에서  $\cos B = \cos C$ 이므로  $b = c = 3k \quad \dots \dots \textcircled{8}$

① cos 법칙 이용한 풀이 (평가원 제공 풀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 A = \frac{b^2 + c^2 - a^2}{2bc} = \frac{(3k)^2 + (3k)^2 - (2k)^2}{2 \times 3k \times 3k} = \frac{7}{9}$

$\sin A = \sqrt{1 - \cos^2 A} = \sqrt{1 - \left(\frac{7}{9}\right)^2} = \frac{4}{9} \sqrt{2}$ ,  $\frac{a}{\sin A} = 2R = 2 \times 3 = 6$ 에서

$a = 6 \sin A = 6 \times \frac{4}{9} \sqrt{2} = \frac{8}{3} \sqrt{2}$ ,  $b = c = \frac{3}{2} a = \frac{3}{2} \times \frac{8}{3} \sqrt{2} = 4 \sqrt{2}$

따라서 구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frac{1}{2} bc \sin A = \frac{1}{2} \times 4 \sqrt{2} \times 4 \sqrt{2} \times \frac{4}{9} \sqrt{2} = \frac{64}{9} \sqrt{2}$

## ②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풀이

꼭짓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삼각형 ABC는  $b=c$ 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overline{BH} = \overline{CH}$  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overline{AH} = \sqrt{\overline{AB}^2 - \overline{BH}^2} = \sqrt{(3k)^2 - k^2} = 2\sqrt{2}k = \sqrt{2}a$  이다.

$$\therefore \sin B = \frac{\overline{AH}}{\overline{AB}} = \frac{2\sqrt{2}}{3}$$

$$\frac{b}{\sin B} = 2R = 2 \times 3 = 6 \text{ 에서, } b = 6 \sin B = 6 \times \frac{2\sqrt{2}}{3} = 4\sqrt{2}, \quad a = \frac{2}{3}b = \frac{8}{3}\sqrt{2}$$

$$\therefore \triangle ABC = \frac{1}{2} \times \overline{BC} \times \overline{AH} = \frac{1}{2} \times a \times (\sqrt{2}a) = \frac{64}{9}\sqrt{2}$$

## 3. 수열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수열의 정의부터 시작해 등차·등비수열의 일반항, 합 공식 등을 배우며, ‘공식 암기가 중요한 단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암기는 필요하지만, 수능 객관식 킬러 및 준킬러 문제의 경우 대부분 수열의 정의인 ‘수를 하나씩 나열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위권일수록 ‘하나씩 세는 것’이나 ‘단순한 나열’을 귀찮아하고, ‘쌘뽕한 풀이’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수학 II (미적분 I)

수학 II는 ① 함수의 극한과 연속, ② 미분, ③ 적분 단원으로 구성되며, 세 단원 모두 ‘극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수능 킬러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하므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전까지는 항상 ‘어떤 수’에 대해 공부해왔다면, ‘극한’은 처음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수학 II의 기초가 됩니다.

극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일정한 테크닉을 익힌다면(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함수의 연속 조건 등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기본 문제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 2. 미분

미분은 극한을 바탕으로 도입되며, 쉽게 말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넘어서 곡선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며, 이는 실생활의 속력, 경제의 한계 비용, 물리학의 가속도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변화량을 무한히 작게 만들었을 때의 극한값’이라는 개념을 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도함수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주로 도함수의 정의보다는 다양한 미분 공식을 활용해 해석 능력을 평가하므로, 기본 함수의 도함수 공식과 곱의 미분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수능에서는 도함수 그래프 해석, 최대·최소 응용, 접선의 방정식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며, 시각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 미리 알아야 하는 개념

수학 상 (공통수학 I): 함수의 증가/감소, 평균변화율

공통수학 II: 함수의 그래프 개형, 합성함수

### 3. 적분

미분이 순간 변화율을 다루었다면, 적분은 그 반대 개념인 누적을 다루는 단원입니다. 함수가 만들어내는 면적을 구하며, 이를 통해 이동 거리, 총 소비량 등 현실 문제에 응용됩니다.

적분은 부정적분과 정적분(면적 계산)으로 나뉘며, 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입니다.

수능에서는 이 정리를 바탕으로 도함수를 이용한 넓이 계산, 넓이의 변화량을 함수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초반에는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연습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에는 넓이의 대소 비교, 도형의 면적 계산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특히, 도형 해석(기하적 접근) 방식은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 미리 알아야 하는 개념

중3 : 도형의 성질

### 마무리하며

수학은 ‘개념은 알지만 문제는 못 풀겠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과목입니다. 이는 개념을 ‘암기’만 했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 단원을 학습할 때는 공식보다 먼저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풀이보다, 정확하고 단단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해석력입니다.

예비 고2의 겨울방학은 그 기반을 다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활용해 이해 중심의 개념 정리와 수능까지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개념노트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수학 영역 공부법 - 확률과 통계

세종우리누리 15기 멘토 박 소 운

확률과 통계는 다른 수학 과목에 비해 계산보다는, 개념 이해와 논리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추상적이고 문제의 조건 해석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포함해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확통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정의, 조건부 확률,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등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보다 '왜 그런 공식과 개념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확률 개념을 이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B|A) = \frac{P(A \cap B)}{P(A)}$$

조건부 확률  $P(B|A)$ 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뜻합니다.

이 정의를 '이해'해보면, 원래 확률은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건 A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의 수가 'A가 일어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편, 여기서  $P(A \cap B)$ 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고,  $P(A)$ 는 'A가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P(A \cap B)$ 를  $P(A)$ 로 나누는 의미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A 안에서 차지하는(A가 일어났다는 상황 전제)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40명이 A라는 조건(예: '키가 170cm 이상')을 만족하고, 그 중에서 10명이 B라는 조건(예: '축구를 좋아함')도 만족한다고 해봅시다.

$$P(A) = 40/100 = 0.4$$

$$P(A \cap B) = 10/100 = 0.1$$

그렇다면,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 중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 즉 조건부확률은

$$P(B|A) = \frac{P(A \cap B)}{P(A)} = \frac{0.1}{0.4} = 0.25$$

즉,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25%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념을 이해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친구들에게 개념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숙지해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이 복잡한 확률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도록 주머니 상태 그림, 표, 벤다이어그램 등으로 문제를 시각화하여 정리하면 이해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들을 하나씩 도식화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별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확통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대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이하고 익혀두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수학 과목과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틀린 문제는 꼭 오답노트에 정리하세요.

틀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아 같이 자세하게 적어두어야 합니다.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경우라면 개념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답노트를 정리할 때는 다음에 보았을 때도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답노트에 적은 문제들도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 직전에는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감각도 함께 키우시길 바랍니다. 확통은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과 함께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보며 실제 시험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조건 부분(적어도, ~끼리 이웃, 일렬로 등)에 체크하고,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는 습관도 꼭 함께 키우셔야 합니다. 덧붙여, 확통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서, 하나의 정해진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통을 공부할 때, 내신의 경우 교과서와 학교 부교재 문제, 수능의 경우 모의고사 풀이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개념 이해를 돕는 참고서는 개념 원리, 유형을 잡아주는 참고서는 ‘썸’ 또는 ‘마더텅’을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확통은 그 무엇보다 반복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장점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이라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성실히 공부해 나간다면 그 끝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수학 영역 공부법 - 미적분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김 현 지

2027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영역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중 미적분의 단원은 ① 수열의 극한, ② 미분법, ③ 적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수학 영역 시험은 공통으로 평가하며 출제 범위는 ‘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입니다. 여기서 ‘미적분1’의 내용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II와 유사합니다. 해당 글에서 다루고 있는 미적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적분1보다 미적분2에 가깝습니다.

### ①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내신에서 수열의 수렴, 발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간단한 이론이지만 실수하기 쉬우므로 차분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풀이 접근 방법에 따라 조금씩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데, 풀이에 따라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비의 조건에 유의해서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 ② 미분법

수학 II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배웠다면, 미적분에서는 이를 확장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배웁니다.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기 전에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에 대해 배웁니다. 이는 삼각함수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 활용되므로 헛갈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암기하길 바랍니다. 또한,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lim_{x \rightarrow 0} \frac{\sin x}{x} = 1$  임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도형 문제가 많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 곡선의 오목과 볼록, 곡선의 변곡점에 대해 배웁니다. 이러한 정보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활용됩니다. 그래프는 방정식을 풀 때도 도움이 되므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하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적분법

적분법도 이전 단원 미분법과 마찬가지로 수학 II에서 다른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 확장해 다양한 함수의 적분법에 대해 배웁니다. 적분이 미분의 반대라고 생각해서 대충 넘어가면 적분 상수를 까먹는 등의 기본적인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적분 과목에 나오는 함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적분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등을 배웁니다. 부분적분법은 미분하면 간단해지는 함수와 적분하기 쉬운 함수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순으로 적분하기 쉬워진다고 외우지만, 암기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에서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 문제의 도형이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간단한 도형으로 주어지면 도형의 넓이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보면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양하길 바랍니다.

# 수학 영역 공부법 - 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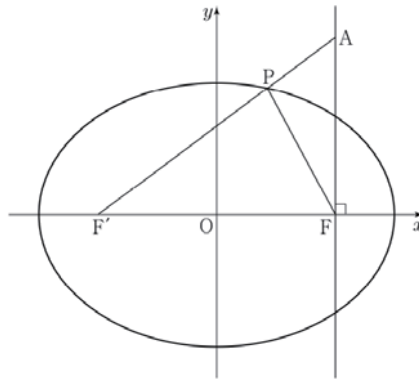
##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장 동 휘

문과로서 현역 때 기하 고득점(22점)을 맞은 경험은 참 짜릿했습니다. 과연 문돌이가 기하에서 어떻게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하 공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 ‘**개념에 충실하며 같은 문제에 여러 풀이 적용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타원의 성질만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에도, 닮음이나 접선의 방정식 등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여 풀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를 같이 보면, 쉽게 외닿을 수 있을 겁니다.

25. 타원  $\frac{x^2}{a^2} + \frac{y^2}{5} = 1$ 의 두 초점을 F, F'이라 하자. 점 F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 위의 점 A가  $\overline{AF'} = 5$ ,  $\overline{AF} = 3$ 을 만족시킨다. 선분 AF'과 타원이 만나는 점을 P라 할 때, 삼각형 PF'F의 둘레의 길이는? (단, a는  $a > \sqrt{5}$ 인 상수이다.) [3점]

- ① 8      ②  $\frac{17}{2}$       ③ 9      ④  $\frac{19}{2}$       ⑤ 10



이 문제는 23학년도 9월, 제가 현역일 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3점 문제이지만, 무려 세 가지 풀이가 가능한 알찬 문제인데요. 어떤 풀이가 가능한지 같이 한번 봅시다.

###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

직각삼각형  $AF'F$ 에서  $\angle AFF' = 90^\circ$ 이므로,  $FF'^2 = AF'^2 - AF^2 = 5^2 - 3^2 = 16$

따라서 원점부터 타원의 초점까지의 거리는  $FF' = 4$  ( $FF'$ 는 양수)가 된다.

이때,  $a^2 = b^2 + c^2$ 에서  $b^2$ 은 5,  $c^2$ 은 4이므로,  $a^2 = 9$ ,  $a = 3$  ( $a$ 는 양수)이다.

타원에 성질에 의해, 타원의 두 초점을 F와 F'이라고 하면, 타원 위 임의의 점 P에 대해,

$\overline{PF} + \overline{PF'} = 2a = 6$ 을 구할 수 있으므로,

(삼각형의 둘레)  $= \overline{PF} + \overline{PF'} + \overline{FF'} = 6 + 4 = 10$

따라서 답은 '⑤ 10'이 됩니다.

### 벡터와 길이비를 통한 풀이

초점  $F(2,0)$ ,  $F'(-2,0)$ , 점  $A(2,3)$ 이므로, 선분  $AF'$ 의 길이는 5이다.

이때 직선  $AF'$ 의 방향벡터  $\vec{d}$ 는  $F' - A = (-4, -3)$ 이다.

따라서 직선  $AF'$  위 임의의 점  $X$ 는  $X(k) = A + k\vec{d} = (2-4k, 3-3k)$  ( $0 < k < 1$ )

( $k=0$ 이면  $X$ 는  $A$ 이고,  $k=1$ 이면,  $X$ 는  $F'$ 이므로,  $0 < k < 1$ 이다.)

이때, 점  $X(k)$ 가 타원 위에 놓인다면,

$$\frac{(2-4k)^2}{9} + \frac{(3-3k)^2}{5} = 1 \text{ 이 성립한다. (a=3인 타원의 방정식 대입)}$$

따라서  $k = \frac{2}{7}$  ( $0 < k < 1$ )일 때, 점  $X(k)$ 는 타원 위의 임의의 점  $P$ 와 동일한 점이 된다.

$$\text{이때, } \frac{|AP|}{|PF|} = k : (1-k) = \frac{2}{7} : \frac{5}{7} \text{ 이므로,}$$

$$|\overline{PF}| = (1-k)|\overline{AF'}| = \frac{5}{7} \times 5 = \frac{25}{7}$$

$$\text{따라서, } |\overline{PF}| + |\overline{PF'}| = 6 \text{ 에서 } |\overline{PF}| = 6 - \frac{25}{7} = \frac{17}{7}$$

$$(\text{둘레}) = |\overline{PF}| + |\overline{PF'}| + |\overline{FF'}| = \frac{17}{7} + \frac{25}{7} + 4 = 10$$

따라서, 마찬가지로 답은 ⑤ 10입니다.

### 좌표를 통한 풀이

$A(2,3)$ 이므로 타원의 방정식은,

$$\frac{x^2}{9} + \frac{y^2}{5} = 1$$

이를 토대로, 직선  $AF'$ 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m = \frac{3-0}{2-(-2)} = \frac{3}{4}, \quad y-3 = \frac{3}{4}(x-2) \Rightarrow y = \frac{3}{4}x + \frac{3}{2}$$

타원 위 임의의 점  $P$ 는 해당 직선과 타원의 교점 중  $x$ 좌표가 양수인 값이므로,

$$\frac{x^2}{9} + \left(\frac{3}{4}x + \frac{3}{2}\right)^2 = 1, \quad (7x-6)(23x+66) = 0$$

따라서  $P$ 의  $x$ 좌표는  $\frac{6}{7}$  이고,  $y$ 좌표는  $\frac{15}{7}$ 이다.

해당 좌표를 토대로 각 변의 길이를 더해, 둘레를 구하면,

답은 ⑤ 1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왜 첫 번째 풀이로만 하면 되지, 계산이 복잡한 두세 번째로도 풀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계산하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풀이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하는 유독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택하거나, 떠오르는 하나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만약, 그때 학생이 선택한 풀이가 두세 번째와 같이 복잡한 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시하는 ‘개념에 충실하며 같은 문제에 여러 풀이 적용하기’라는 공부법은 큰 의의를 갖습니다. 우선,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 통찰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정된 풀이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여, 시험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풀이를 적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음으로 이 공부법은 여러분들께 보험이 되어줍니다. 앞서 언급했듯,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맞는 가장 완벽하고 깔끔한 풀이를 찾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통 영역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선택 영역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풀이가 복잡하고 막힐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소해 보여도, 시험장에선 굉장히 큰 위안과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양치기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문제를 많이 접하고, 그것들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기출 문제를 다루되, 해설지에 여러 가지 풀이를 제공하는 독학서나 인터넷 강의 중 모쪼록 자신에게 맞는 좋은 교재와 선생님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어 영역 공부법

세종우리누리 15기 멘토 김 지 우

현재의 모의고사 체제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어에 들이는 공부 시간이나 중요도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적의 중요성 자체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은 시간 투자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공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듣기 파트를 전부 맞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듣기를 틀려요ㅠㅠ 분명 다 맞을 줄 알았는데...’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듣기 평가 진행 중, 뒷장에 있는 도표 문제부터 풀다가 듣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 문제는 총 17문제가 배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의 실수가 전체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실전처럼 연습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험장에는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어폰으로 연습하는 방식은 실전 감각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듣기 연습은 스피커를 사용하여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 한 문제를 놓쳐도, 바로 다음으로!

듣기 파트는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문제를 놓쳤다고 멍하니 있지 말고, 바로 다음 문제에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장 말이 되는 선지를 빠르게 고르고 미련 없이 넘어가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 듣기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이라면?

듣기 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면, 1.25배속으로 듣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되면 실전에서는 훨씬 또렷하게 들리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모래주머니 훈련’처럼 효과적인 연습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단어 암기’입니다. 영어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언 단어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읽을 수 없으며, 추론도,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단어 암기는 귀찮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명합니다.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영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단어책 한 권을 한 번 보고 ‘다 외웠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사람의 뇌는 금방 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단어책을 4번, 5번 이상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책 속의 아무 단어나 골라도 즉시 뜻이 떠오를 정도로 반복해야 합니다. 아직 완벽히 외우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단어장을 계속 사들이는 건 공부가 아니라 ‘쇼핑’에 가깝습니다.

### ▶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처음 보는 단어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 때문에 멈춰서기보다는, 앞뒤 문장과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어 전체를 몰라도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핵심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실전 독해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 독해 전략: 글의 구조 및 흐름을 파악하라

문제를 풀 때는 paraphrasing(쉬운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즉,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추론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빈칸 파트의 문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34. Centralized, formal rules can \_\_\_\_\_.

The rules of baseball don't just regulate the behavior of the players; they determine the behavior that constitutes playing the game. Rules do not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they create the very practice that allows people to play baseball. A score of music imposes rules, but it also creates a pattern of conduct that enables people to produce music. Legal rules that enable the formation of corporations, that enable the use of wills and trusts, that create negotiable instruments, and that establish the practice of contracting all make practices that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And we have legal rules that establish roles individuals play within the legal system, such as judges, trustees, partners, and guardians. True, the legal rules that establish these roles constrain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ho occupy them, but rules also create the roles themselves. Without them an individual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occupy the role. [3점]

\* constrain: 속박하다

- ① categorize one's patterns of conduct in legal and productive ways
- ② lead people to reevaluate their roles and practices in a society
- ③ encourage new ways of thinking which promote creative ideas
- ④ reinforce one's behavior within legal and established contexts
- ⑤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by establishing roles and practices

6

이 지문은 '규칙'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문은 공식적인 규칙, 야구의 규칙, 악보(음악의 규칙)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예시들이 왜 나왔을까?’를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시들 속에서

- 초록색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 노란색 밑줄은 행동을 촉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해당 지문은 ‘행동을 촉진하는 관행과 역할의 확립’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글 전체의 주제이자 중심 논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러한 중심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한 선택지인 ⑤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적인 환경을 촉진할’이 됩니다.

즉 지문에서 다양한 예시가 등장하면, ‘이 예시들이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글 전체에서 더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정답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글의 구조와 흐름을 시각적으로 분석하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정답을 빠르게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지문을 읽을 때에도 색깔 밑줄이나 요약 정리처럼 구조를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글의 핵심이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문을 눈으로만 읽기보다, 직접 시각적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 ▶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영어 모의고사는 총 4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시간은 70분입니다. 이 중 약 25분이 듣기 파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28문제를 45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문제 풀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자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 전체를 풀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듣기나 도표처럼 평소엔 수월하게 느껴졌던 문제들도 시간 압박 속에서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70분 안에 전 영역을 풀어보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공부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단어, 독해, 듣기 등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 해보세요. 분명 어느새 영어 실력이 늘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가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는 분명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 사회탐구영역 공부법 -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종우리누리 15기 멘토 박 소 운

윤리는 사람, 사회, 국가, 철학 등을 다루는 과목으로, 이해하고, 비교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2024년 수능 ‘윤리와 사상’에서 만점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윤리를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리는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사회적 개념이 중심이기 때문에, 용어와 이론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서 내용 또는 기본 개념서를 이해하며 정독합니다. 특히, 이론 자료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습니다. 이때 개념이 자신의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마인드맵이나 구조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사상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는 문제를 풀이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윤리와 사상’에서는 한자어로 된 개념어가 다수 존재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자어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여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황의 ‘이기호발설’에서 이(理)는 ‘도덕적 원리’, 기(氣)는 ‘현실적인 물질’, 호(互)발(發)은 ‘서로 발동한다’(함께 작용한다)라는 뜻이기에 결국 ‘이’와 ‘기’가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현된다고 주장한 이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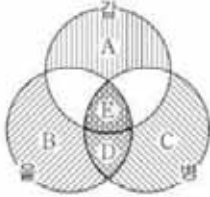
이후, 공책에 백지 노트를 작성해 봅니다. ‘생활과 윤리’(생윤)의 경우, 주제별로 핵심 키워드를 적고, ‘윤리와 사상’의 경우, 각 사상가의 핵심 키워드를 책을 보지 않고 암기해 빈 종이에 써내려 갑니다. 작성한 다음, 다시 책을 펼쳐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을 빨간펜으로 채워나갑니다. 빨간펜 부분 위주로 암기합니다.

머릿속에 개념을 확립한 다음, 문제를 풀어봅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역대 모의고사 기출(마더텅) 등을 풀이하면 됩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앞에 언급한 세 가지를 모두 풀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 선택 사항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개념이 지문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파악합니다. 개념 확립이 잘 되어 있다면, 대부분 선지의 맞는 이유와 틀린 이유를 모두 적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킬러 문항을 포함한 모든 문항을 풀이할 때, 난이도를 고려하여 1분 30초~2분 정도의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내신 시험 또는 수능 날 타임어택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선지 또는 보기 글을 꼼꼼히 읽어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내용인데도, 문제 의도를 잘못 이해해 틀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막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이 포함된 문제에선, 범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p>갑: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그런 행위는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p> <p>을: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다.</p> <p>병: 모든 생명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병만의 입장</p> <p>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E: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 ① A: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② B: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③ C: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④ D: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⑤ E: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다.

2023년 4월 모의고사 15번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우선 (가)를 읽고 갑, 을, 병 사상가가 누군지 파악을 하고, 선지를 읽어 나갑니다. 이때, 2번 선지 같은 경우에서,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병의 입장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린 선지(B가 아니라 D에 해당) 됩니다, 이처럼 선지 내용이 다른 사상가에도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풀이 이후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 꼭 오답노트를 작성하며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틀린 문제에는 틀린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1) 개념이 부족한지, 2) 문제 형식을 헷갈렸는지 (문제를 잘못 이해했는지), 3) 단순 실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나갑니다.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학교 선생님께 주저 없이 여쭙어보는 것도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헷갈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렵게 느껴진(킬러), 혹은 생소한 선지들을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이 노트는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에 적힌 선지들은 모두 보지 않고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읽어둡니다.

윤리 과목에 대해 정확한 개념 확립과 문제 풀이를 통한 적용 연습, 선지 분석 습관을 잡는다면, 효율적인 공부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탐구영역 공부법 - 역사(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윤 태 원

안녕하세요, 우리누리 11기 멘토 윤태원이라고 합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도 시험 잘 치르시고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공부법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제목과 같이 제가 설명할 과목은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입니다. 다만, 3과목 모두 본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비슷하므로,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사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문계열이 아닌 이과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넘어가실 수도 있겠으나, 한국사는 모두가 봐야 하는 과목이니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는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한국사로 이어지며 수능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내신 한국사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수능 한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일부 교양 수업에서도 다뤄지고, 특히 공직 준비 과정에서는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과계열 학생들도 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공기업에 뜻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사는 학창 시절뿐 아니라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사는 중요도에 비해 귀찮고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여겨집니다.

대개 역사 과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완전히 암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치, 사회·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여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법 없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공부하기가 매우 괴로워집니다. 일례로 제가 봤던 한 학생은 연도를 외워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더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법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과목이니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유형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1학년 때 반드시 한국사 과목을 들어야 하니, 어떤 계열로 진학하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1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사 과목들의 대다수 킬러 문제는 사건의 순서를 맞추거나, 특정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내고자 하시면 2~3년 단위의, 연도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낼 수도 있지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표를 통해 정치적 사건, 유물, 종교, 즉위한 왕의 순서 같이 유형별로 정리한 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대사 이전에 대한 문제를 내면 이렇게 유형별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시다!’ 하면 임금별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조선의 왕 순서는 많이들 외우죠. 예를 들어, [태 - 과전법 실시 / 정 - 없음 / 태 - 6조 직계제, 사병 혁파 / 세 - 훈민정음 반포] 이런 식으로 고려 왕이나 삼국시대의 왕들도 외워서 정리해 두고, 표를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순서를 암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공부해야 한다면, 국가별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한국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사 이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벌어진 개혁, 사건,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특정 사건과 이유를 결부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어렵다면, 근대사 이후로 한정해서 연도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 안되면 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3.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청일전쟁(1894)                      을미개혁(1895)  
|----- (가) -----|

| <보기>           |                |
|----------------|----------------|
| ㄱ. 삼국 간섭       | ㄴ. 재판소 설치      |
| ㄷ. 황룡촌 전투<br>해 | ㄹ. 일본의 명성황후 살  |
| ㅁ.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 ㅂ.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 |

- |              |              |
|--------------|--------------|
| ① ㄱ, ㄷ       | ② ㄴ, ㄹ       |
| ③ ㄴ, ㄷ, ㅂ    | ④ ㄱ, ㄴ, ㄹ, ㅁ |
| ⑤ ㄷ, ㄹ, ㅁ, ㅂ |              |

한번 내신 문제를 풀어볼까요? 위 문제는 청담고등학교 한국사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3번부터 꽤 난도가 있는 문제를 내고 있네요.

청일전쟁과 을미개혁을 우선 알아야겠죠.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이후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하며, 청나라에게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고자 일으킨 전쟁이고,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하기 직전에 김홍집 내각이 내세운 개혁입니다. 재판소 설치의 청일전쟁 이후 일어난 갑오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니 맞는 선지입니다. 황룡촌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중 벌어진 전투이니 틀린 선지고요. 일본의 명성황후 살해, 아까 을미사변 이후 일어난 것이 을미개혁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맞는

선지네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가 패전하고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선지네요!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이 조금 어려운 선지네요. 자칫하면 삼국간섭의 결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연해주 획득은 청일전쟁 이전인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가 혼란스러워 여러 민란이 일어났고,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지요. 일제와 청나라는 조선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자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져 조선에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렇게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이겨서 친일 정부를 세우고 갑오개혁을 진행합니다. 또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받기로 하였으나, 중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러시아·프랑스·독일 삼국이 간섭하여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힘을 본 고종 내외는 친러로 돌아서서 친일 내각이 붕괴하기 직전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킨 뒤 다시 친일 내각을 세워 을미개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세부 사항은 따로 외워두고,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사건의 순서와 시간대를 알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 대다수 역사 과목의 문제는 골라내기가 중요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미진했더라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ㄱ, ㄴ, ㄷ은 확실하게 맞는 선지이고 ㄹ이 틀린 선지인 것을 고르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서 ㄴ과 ㄹ선지에 대해 잘 몰라도, 답이 4번이라는 것을 고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선지별로 공부를 철저히 해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능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2학년 이상의,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친구들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금 전혀 준비를 하지 않다가 3학년 2학기에 가서 잠깐 준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신 데, 이 경우는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 한하고, 많이 자신이 없다면,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더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수능 한국사는 매우 쉬운 편인데다 절대 평가라 공부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교과서를 한번 정독하고, 기출을 계속 풀면 됩니다. 얼마나 풀어야 하나면, 다 맞힐 때까지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풀면 됩니다. 보통 수능 한국사는 나오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ex. 반달돌칼의 사용 시기를 묻는 문제) 기출만 풀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이렇게 해도 한국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선지별 공부법을 추천 드립니다. 기출문제의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든, 그 문제의 선지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고,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제66회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의 문제입니다. 1점짜리 문제이지만 수능의 난도와 거의 비슷해서 채택해 보았습니다.

**4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9호)**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氏)를 정하고 이를 부운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본령 시행 당시 호주의 성을 씨로 삼는다.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말해 볼까요?



- ①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 ②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 ③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④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창씨개명에 대한 문제군요! 한국사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일지라도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일 정도로 다들 아는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창씨개명은 일제 말기 민족말살정책의 일환 중 하나이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선지인 통감부는 아직 일제시대가 아닐 때 설치되었고, 2번은 초기인 무단통치 시기의 대표적 정책입니다. 3번과 5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 선지는 태평양전쟁기, 즉 일제 말기에 일어난 일이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 4번 선지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오답 선지인 1, 2, 3, 5번 모두에 대해서 바로 어떤 시간대이고, 무슨 내용인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복습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습하면, 특히 수능문제는 비슷한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한 선지가 나오게 되면 정답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부법을 잘 알았고, 암기도 잘되니, 이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속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사를 한번 풀어볼까요? 25년도 수능 세계사 16번 문제입니다.

16. (가) 조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영국 (가)에 고용된 용병들에게 새로 지급된 앤필드 소총의 탄약통에는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영국이 인도의 전통인 카스트를 파괴하고 용병들을 크리스티교로 강제 개종시키려 한다는 말까지 퍼졌다. ... (중략) ... 불만은 확산되고 있었고, 영국인들만 탄약통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은 오히려 용병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 (중략) ... 그 결과 거센 폭풍처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 『디 애틀랜틱』 -

- ① 벵골 분할령의 영향을 찾아본다.
- ② 롤럿법 제정의 결과를 파악한다.
- ③ 파쇼다 사건의 배경을 조사한다.
- ④ 카슈미르 분쟁의 주체를 알아본다.
- ⑤ 보스턴 차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제 생각에는 킬러 문항 수준의 난도인데요. 미리 공부해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복습도 할 겸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가)조직이 동인도회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세포이의 항쟁을 설명하는 내용이니, (가)는 세포이를 고용한 동인도회사이지요. 문제는 선지입니다. 속어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 선지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1번은 1885년 인도총독이 시행한 법령이고, 2번인 롤럿법은 1차세계대전 이후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 관련 법입니다. 3번인 파쇼다 사건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충돌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고, 카슈미르 분쟁은 인도-파키스탄-중국 간의 국경분쟁이지요. 보스턴 차사건은 미국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고요. 아! 그럼 동인도회사 문제니까 인도 관련 선지가 정답이겠군요! 근데 그럼 연도를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역사 문제들 중 연도를 외워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는 한국의 정부수립 연도, 독립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를 제외하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끔 연도를 모두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기 너무 어렵고 나중에 헛갈리면 대참사가 납니다.

아니 그래서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아마 ‘왜 이게 정답이나’ 라고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해당문제는 ‘동인도회사’에 대해 묻는 문제지, ‘인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를 어디서 수입했죠? 중국이죠. 중국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차에 세금을 매겨 일어난 것이 보스턴차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을 담당한 것이 동인도회사지요. 동인도회사는 단순히 인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무역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선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아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자면, 공부법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역사 공부 자체가 힘든 친구들을 위한 흥미를 끌어내는 작업에 가깝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부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은 없지만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 1. 상상해 보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꽤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역사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에게 말이죠. 예를 들어, ‘조선이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 그 격동의 시대에 벌어진 여러 가지 개혁들, 사건들, 갑신정변은 왜 실패했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고종이었다면 을미사변 이후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꽤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본인 스스로 골똘히 생각해 본 것은 기억에 잘 남기 마련이거든요.

### 2. 사건과 이유를 결부시켜서 흐름 파악하기

아까 내신 문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 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세금제도를 공부한다고 하면,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정권을 잡고 과전법을 실시했을 때는, 권문세족들을 정리하기 위해 과전법을, 이후 세종은 나라 안정을 위해 연분9등법을, 세조는 찬탈 이후 권력강화를 위해 직전법을, 이런 식으로 이유와 사건을 결부시키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흐름을 파악하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 3. 유형별로 정리하기

한국사의 경우는 임금별로, 정치 사건별로, 문화별로, 제도별로, 다양한 유형을 나눠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이후가 되겠네요. 혹은 시대별로 나눠도 좋습니다. 조선 전기, 중기, 후기별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따로 정리하고, 다시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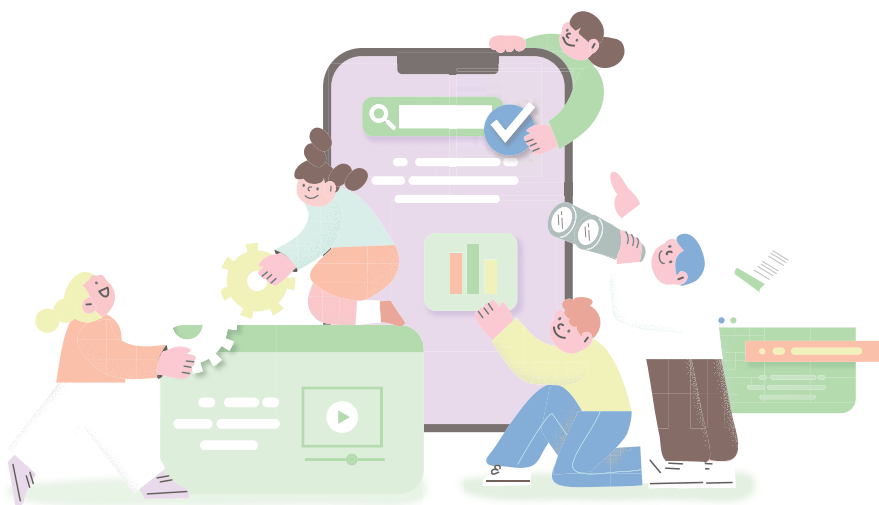
### 4. 선지별로 확실하게 공부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출을 많이 풀어 보시고, 선지별로 확실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한 문제를 공부할 때 많게는 열 문제 넘게 공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학과 과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과목에 통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역사과목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니, 위의 방안들이 너무 어렵고 귀찮아서 하기 싫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야만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 5. 확률 올리기

이건 공부법보다는 시험 보는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겠지만, 가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닌 것과 맞는 것을 구분하여 선지를 지워 나가는 작업은 시험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맞힐 확률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올라가는 작업이니까요. 심지어 위의 문제같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6개 중 3~4개에 불과하더라도 맞힐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험을 보든, 특히 역사 같은 암기과목을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공부법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하거나, 혹은 내 방식대로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공부나 진로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진로교육원을 통해 세종우리누리에 연락주시면, 다양한 문이과 상관없이 다양한 계열의 멘토들이 대기 중이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치르시고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탐구영역 공부법 - 일반사회(사회문화)

### 세종우리누리 12기 멘토 배 민 서

사회문화는 과목의 숙련도 수준에 따라 공부법을 다르게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매년 예상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균등한 내용의 문제가 나오고,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의 유형 또한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과목의 경우 본인의 숙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맞춰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나 본인의 숙련도 수준이 자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면 실제 시험을 응시한 후 본인의 등급을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부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소개할 것입니다. 본인의 등급이 4등급 이하 수준이라면 첫 번째 단계, 2~3등급 수준이라면 두 번째 단계, 1등급 혹은 간간이 2등급이 나오는 수준이라면 세 번째 단계라 생각하시고 공부 방법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즉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수준에서는 일단 수능특강이나 기타 이론서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문화는 오답률이 낮은 대부분의 문제가 내용을 숙지 및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오답률이 낮은 내용의문제를 전부 맞힐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반적 내용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첨부하자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이론들을 묶어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빈출 주제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비교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존재법칙, 확률성, 개연성의 원리-확실성, 필연성의 원리 등 상반되지만 짝을 이루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문제 또한 상반되는 개념의 비교를 묻는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짝을 이루는 반대의 특성들을 표로 정리해 상반되는 용어의 특성까지 함께 묶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불어 아직 내용 숙지가 완전히 되지 않은 1단계 수준에서는, 실전 상황에서 도표 통계문제는 미뤄두고, 나머지 이론 문제를 모두 푼 후 남은 시간에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보다 단단하게 다지고 세 번째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빈출 내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같은 내용 하에서 비슷한 문장의 선지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선지 또한 비슷한 몇 가지의 문장 사이에서 번갈아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인이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빈출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함과 더불어 선지의 문장 자체에 익숙함을 느끼시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익숙해지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져 여유시간을 챙기기에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 세 번째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도표 통계 문제를 시도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도표 통계 문제의 경우 사회문화 과목의 문제 유형 중 가장 문제해결능력을 요하는 문제로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바둑판 형태의 표를 그려 풀이하는 방법을 사용하니, 가장 먼저 적용해 보시면서 문제의 원리를 이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등급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면 전반적인 이론의 내용을 다룬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 도표 통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도표 통계의 경우 앞선 이론 문제와는 다르게 문제를 본 직후의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막연히 많이 풀어보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푸는 문제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표 통계 문제를 여럿 풀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문제 풀이 방법을 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의 출제 양상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다르게 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가장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도표 문제는 1등급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실제 기출 문항을 가져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3월 출제된 부양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총인구는 t+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t+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 구분           | t년 | t+30년 | t+60년 |
|--------------|----|-------|-------|
| 유소년 인구 비율(%) | 30 | 20    | 10    |
| 유소년 부양비      | 50 | 40    | 25    |

\* 유소년 인구 비율(%) =  $\frac{\text{유소년 인구}(0 \sim 14\text{세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 \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부양 인구는 t년이 t+30년보다 많다.
- ② 노년 인구는 t+60년이 t년의 5배이다.
- ③ 노년 부양비는 t+60년이 t+30년보다 작다.
- ④ t+30년 총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60년 총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과 같다.
- ⑤ t년 대비 t+30년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t+30년 대비 t+60년에 감소한 유소년 인구보다 작다.

위 문제를 풀고자 하면 일단 아래 형식과 같은 표를 그리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부양비 관련 도표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표의 형태이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t | t+30 | t+60 |
|--------|---|------|------|
| 0~14세  |   |      |      |
| 15~64세 |   |      |      |
| 65세 이상 |   |      |      |
| 전체     |   |      |      |

표를 다 그리셨다면, 유소년 인구 t기의 인구 수를 임의로 1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삼아 차례로 표를 채워 나갑니다. 먼저 서술을 보고 가장 간단히 채울 수 있는 전체 인구 수를 채웁니다. t+30기의 경우 t기와 비교하여 20% 증가이므로 120, t+60기의 경우 t기와 비교하여 20% 감소이므로 80입니다.

| 구분     | t   | t+30 | t+60 |
|--------|-----|------|------|
| 0~14세  |     |      |      |
| 15~64세 |     |      |      |
| 65세 이상 |     |      |      |
| 전체     | 100 | 120  | 80   |

다음은 문제에서 제공되는 표를 보고, 유소년 인구(0~14세) 란을 채웁니다. 앞서 구해 준 각 시기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t기의 경우  $30/100 \times 100 = 30$ , t+30기의 경우  $20/120 \times 100 = 24$ , t+60기의 경우  $10/80 \times 100 = 8$ 입니다.

| 구분     | t   | t+30 | t+60 |
|--------|-----|------|------|
| 0~14세  | 30  | 24   | 8    |
| 15~64세 |     |      |      |
| 65세 이상 |     |      |      |
| 전체     | 100 | 120  | 80   |

이제는 부양 인구(15~64세)를 구해줄 차례입니다. 표 아래 서술되어 있는 유소년 부양비 공식에 부양 인구를 미지수(A)로 설정하고 앞서 구한 유소년 인구와 표에 나타나 있는 유소년 부양비를 대입해 구하면 됩니다. t기의 경우  $30/At \times 100 = 50$  At=60, t+30기의 경우  $24/At+30 \times 100 = 40$  At+30=60, t+60기의 경우  $8/At+60 \times 100 = 25$  At+60=32입니다.

| 구분     | t   | t+30 | t+60 |
|--------|-----|------|------|
| 0~14세  | 30  | 24   | 8    |
| 15~64세 | 60  | 60   | 32   |
| 65세 이상 |     |      |      |
| 전체     | 100 | 120  | 80   |

여기까지 채우셨으면 노년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나머지 인구(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를 차감하여 채워 주시면 됩니다. t기의 경우  $100 - 90 = 10$ , t+30기의 경우  $120 - 84 = 36$ , t+60기의 경우  $80 - 40 = 40$  입니다.

| 구분     | t   | t+30 | t+60 |
|--------|-----|------|------|
| 0~14세  | 30  | 24   | 8    |
| 15~64세 | 60  | 60   | 32   |
| 65세 이상 | 10  | 36   | 40   |
| 전체     | 100 | 120  | 80   |

이제 완성된 표를 가지고 아래 오지선다를 차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 단계에서는 이론 문제를 비교적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론 문제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 간헐적으로 전반적인 이론 또한 한 번씩 복습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회탐구영역 공부법 - 일반사회(정치와 법)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장 동 휘

‘정치와 법’ 학습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정치와 법’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기출문제 학습이 공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어느 과목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치와 법’은 개념을 학습한 후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소위 독해를 해야 하는 과목인데다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제시문은 다시 출제되지 않는 탓에, 혹자는 기출문제를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활용되는 법적 사고방식은 꾸준히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하며 기른 법적 사고력이 1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추론 문항을 풀이하는 데 결정적 열쇠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체적인 학습은 개념 학습 및 기출 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N제나 여러 모의고사를 풀이하며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 단원 별 학습 전략

#### 1단원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와 법’ 학습의 토대가 되는 단원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법치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은 매 시험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은 두 개념을 비교·대비하는 설명 방식이 주를 이루니, 개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오답률을 거의 기록하지 않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에서 해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주제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오답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나 기본권 등은 개념의 특성상 어느 하나로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술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형적인 케이스를 출제함으로써 그 모호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년 평가원 기출에 나온 사례를 잘 익혀 조금은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단원 민주 국가와 정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치와 법’을 공부하며 첫 번째로 맞는 고비입니다. ‘정치와 법은 공부량이 많다.’라는 속설은 분명 이 단원에서부터 시작된 낭설일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 기관을 다루기에 양이 방대한 편에 속하므로, 이 부분은 단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복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익혀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교과서나 개념서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3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와 법’의 전통적인 킬러 변별 문항인 ‘선거 결과 분석’ 문항이 속한 단원입니다. 선거 결과 분석을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주제가 없긴 하나, 정치 참여 집단을 비교하는 문제도 빈번히 출제되니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 분석은 복잡한 계산을 능숙히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024 학년도 수능 이후 개념의 빈틈을 파고들어 오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기본 개념부터 견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 4단원 개인 생활과 법

4단원 <개인 생활과 법>에서는 주로 민법에서 다루는 계약 및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가족 관계에 대해 주로 논하는 단원입니다. 불법 행위의 6가지 성립 요건을 잘 알고, 사례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 불법 행위 5가지는 일반 불법 행위와 분명히 별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력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핵심이고, 부부 간 법률 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하며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상속 계산 문제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라지는 예외의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 기출에서 어떤 예외를 통해 평가원이 함정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 사례 분석 문항은 제시문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문제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만의 도식을 그려 선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 5단원 사회 생활과 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를 설명하는 단원입니다. 범죄의 성립, 형벌, 형사 절차가 중심이며, 부가적으로 노동 관계도 다룹니다. 범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구성 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순서를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를 사례를 바탕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형사 절차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가 활용되는지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 위원회를 거치는 구제 절차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 6단원 국제 관계와 한반도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법, 국제 연합 모두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되며 국제 연합의 각 기구들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법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정치적 권리가 확립되고, 성인으로서 법적 영역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20세 이후부터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정치와 법’ 공부는 사회탐구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지만, 저는 지금 혹은 나중에 제가 겪을 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떨쳐 냈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사회탐구영역 공부법 - 일반사회(경제)

### 세종우리누리 12기 멘토 배 민 서

‘경제’의 경우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이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 경제과목의 특성 상, 응시하는 인원이 매우 적고 매니아층이 견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만 가지고 시작해서는 시간만 허비할 뿐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본인이 앞으로 상경계열로의 진학 예정이 있고, ‘경제’라는 과목 자체에 흥미가 있거나 공부머리에 조금 자신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경제’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해 공부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는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처음 경제를 접하고 학습해 나갈 때, 전반적으로 훑어 공부하기 보다는 앞장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내용을 이해해야만 후술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 부분의 개념을 공부하시다가도 앞 부분이 헛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돌아가셔서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신 후에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문제를 풀면서 현상의 결과 또는 근거에 관한 인과관계를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면서 경제 현상의 흐름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 과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용어 자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니 경제 공부를 시작할 때에 경제 용어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시로, 기회비용의 경우,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의 합을 이르는 용어인데, 이를 매몰비용과 헛갈리거나 암묵적 비용만 포함하는 용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과목은 사회탐구 과목 중 논리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는 시간을 끄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험을 응시할 때에 시간 분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과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논리력 문제가 아닌 내용 문제의 경우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빈출되는 주제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시간 단축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별로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만들어 숙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간단한 대소비교문제의 경우, 단순히 머리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 푸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시장 가격의 변화 방향 정도만을 묻는 문제의 경우, 실제로 시험지에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려 직접 수요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보시면서 시각적으로 결론을 확인하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덧붙여 수능 사회탐구 경제과목 수준의 경우, 고등학생 수준에서 경제의 방대한 양을 모두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에서의 모형을 매우 단순화하여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혹여 공부하다가 이러한 단순화에 대해 의문을 느끼시거나, 내용의 흐름이 비약적이라고 느끼시더라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능 특강 등 공식적인 교재가 말하는 대로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능 경제 기출문제 중 19번을 직접 풀이해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 1>은 갑국, 을국, 병국의 국제 거래에 따른 2023년 경상 수지 항목별 수취액을, <표 2>는 갑국의 경상 수지를 항목별로 나타낸다. 을국의 2023년 경상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간, 갑국과 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표 1>

| 구분             | 외화 수취액 |    |    |
|----------------|--------|----|----|
|                | 갑국     | 을국 | 병국 |
| 상품 수지(억 달러)    | 70     | 40 | 20 |
| 서비스 수지(억 달러)   | 30     | ㉠  | ㉡  |
| 본원 소득 수지(억 달러) | 50     | 50 | 0  |
| 이전 소득 수지(억 달러) | 20     | 0  | 15 |

<표 2>

| 경상 수지(억 달러) |        |          |          |
|-------------|--------|----------|----------|
| 상품 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 수지 |
| ㉢           | -25    | 0        | ㉣        |

- ① ㉠과 ㉡의 합은 '55'이다.
- ② ㉢은 '5', ㉣은 '10'이다.
- ③ 갑국은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되는 항목이 5억 달러 적자이다.
- ④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에서 을국과 병국의 외화 지급액 합은 50억 달러이다.
- ⑤ 병국 경상 수지는 병국의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아래 문제는 경상 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계산 및 내용 문제입니다. 주어진 내용 상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 ㉡, ㉢, ㉣을 전부 계산하고자 하기 보다는 선지를 따라 차례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과 ㉡의 합은 '55'이다. → 정답입니다.

갑국이 서비스 수지부문에서 30억 달러를 수취하였는데, 당해 갑국의 서비스 부문 경상 수지가 -25이므로 갑국이 을국, 병국에게 도합 55억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은 '5', ㉣은 '10'이다. → 오답입니다.

상품 수지는  $70 - 40 - 20 = 10$ , 이전 소득 수지는  $20 - 15 = 5$ 입니다.

3. 갑국은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되는 항목이 5억 달러 적자이다. → 오답입니다.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입니다. 해당 항목은 5억 달러 흑자입니다.

4.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에서 을국과 병국의 외화 지급액 합은 50억 달러이다. → 오답입니다.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서비스 수지입니다. 을국과 병국이 지급한 외화는 서비스 수지 항목에서 갑국이 수취한 달러인 30억 달러입니다.

5. 병국의 경상 수지는 병국의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 오답입니다.

삼국 간 거래 양상을 보았을 때 병국의 경상 수지는 흑자입니다. 경상 수지 흑자는 통화량의 증가 요인입니다.

# 과학탐구영역 공부법 - 물리 I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김 현 지

2027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학 I 의 단원은 ① 역학과 에너지, ② 물질과 전자기장, ③ 파동과 정보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과 ‘통합과학 II’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 ‘통합과학 II’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을 잇는 과목이지만, 일부 내용 영역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학 I 과 연관 있는 내용 요소로는 ‘충격량과 운동량’, ‘물질의 전기적 성질’, ‘정보와 신호’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물리학 I 의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 통신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 I 단위별 공부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 영역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① 역학과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의 세부 단원은 1. 힘과 운동, 2. 운동량과 충격량, 3. 역학적 에너지 보존, 4. 열역학 법칙, 5. 시간과 공간의 5개로 구성됩니다. 물리학1은 총 9개의 세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해당 단원은 전체 분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도 문제가 해당 단원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학1에서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요구합니다.

1. 힘과 운동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이 등장합니다.

$$v = v_0 + at, \quad s = v_0t + \frac{1}{2}at^2, \quad 2as = v^2 - v_0^2$$

위 수식들은 속도-시간, 변위-시간 그래프와 속도-변위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한 미적분이나 대입을 통해 수식이 서로 유도되므로 단순 암기하지 말고 스스로 유도해보면서 익히면 암기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각 개념 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수식만으로 문제를 풀 때와 그래프를 병행할 때의 문제 풀이 속도가 다르므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운동량과 충격량, 3.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1. 힘과 운동과 유사하게 확실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의 전후에서 물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 수식을 적어나가면 좋습니다. 수식을 적을 때는 힘의 크기만을 고려해서 부호나 힘이 작용하는 물체를 헷갈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힘의 3요소인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모두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4. 열역학 법칙에서는 등압, 등적, 등온, 단열의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각 경우의 특징을 바탕으로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를 파악하고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시간과 공간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어느 관성 좌표계에서 어느 관성 좌표계를 관찰하는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② 물질과 전자기장

물질과 전자기장의 세부 단원은 6. 물질의 전기적 특성, 7. 물질의 자기적 특성의 2개로 구성됩니다. 먼저, 6.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나오는 쿨롱 법칙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F = k \frac{q_1 q_2}{r^2}$$

$q_1$ 과  $q_2$ 가 각각 점전하의 전하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번 단원 역시 물체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수식은 앞의 ①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봤던 수식에 비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 단원에서는 물체가 2~3개씩 등장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점전하가 3~4개씩 등장하며 수식의 활용보다는 전하량이나 전기력 크기의 비율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각 점전하가 어떤 점전하와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전기력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점짜리 문제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 또는 어떤 점전하의 전하량이 더 크다와 같이 단순한 비교를 물어보는 정도로 출제가 된다면, 3점짜리 문제에서는 축 상의 여러 점전하의 제한된 정보로 전하량이나 전기력의 정확한 비율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므로 각각의 단서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6.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됩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를 주고 전압의 방향을 파악해 p반도체, n반도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응용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때 반도체와 관련된 간단한 이론을 물어보는 보기 문항이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질, 전기 전도도, 에너지띠와 같은 반도체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암기가 함께 요구됩니다.

7.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상황으로 존재합니다. 각 상황이 다르게 보이지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작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앙페르 법칙(오른나사 법칙)을 바탕으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는 직선 도선에서부터 응용해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 유도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도선이 움직일 때와 고정되어있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변할 때가 있는데 렌츠 법칙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단원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① 역학과 에너지 단원과 연관돼서 출제되기도 하므로 이전 단원을 제대로 학습하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 ③ 파동과 정보 통신

파동과 정보 통신의 세부 단원은 8. 파동의 성질과 활용, 9. 빛과 물질의 이중성의 2개로 구성됩니다. 먼저, 8. 파동의 성질과 활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파동의 표현에 해당하는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위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질을 다르게 쫓을 때 파동의 진행을 유추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때 문제의 보기 문항에서 굴절률을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굴절 법칙(스넬 법칙) 이론을 꼼꼼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문제에서는 어느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르지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기도 하므로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파동의 성질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이론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았던 앞의 단원들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해당 단원은 현대 물리학에 관한 내용으로 광전 효과 실험이나 데이비슨·거머 실험, 톰슨 실험과 같이 다양한 실험 사례와 함께 어려운 용어가 등장해서 헛갈리기 쉽습니다. 용어를 잘 익히면서 실험을 이해해야 학습이 수월할 것입니다.



# 과학탐구영역 공부법 - 화학 I

세종우리누리 12기 멘토 윤 지 은

수능 과학탐구는 30분간 20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별 시간 분배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학 I 과목은 시간 분배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과학탐구 영역은 그래프나 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많아 기본 개념과 함께 문제풀이 시간 관리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 I 과목에서는 1단원 양적관계, 4단원 중화반응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관계와 중화반응 관련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 I 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 기출문제를 학습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특강 단원별로 구분한 각 단원별 추천 학습 방법입니다

## I. 화학의 첫걸음

이 단원에서는 아주 기초가 되는 개념 문제부터 변별력을 가진 문항까지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문항이 출제됩니다. 다양한 화학 물질의 용도와 예시를 실생활과 연결한 문제가 극초반부에 출제되며 양적관계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거나 몰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양적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때에는 단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II. 원자의 세계

이 단원은 주기율표와 원자 구조에 대한 단원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과 위치, 이온의 형성 원리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 질량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므로 각각의 정확한 개념과 빠른 계산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단원은 오비탈 개념, 전자껍질, 전자 배치의 시각화를 통한 암기를 추천합니다. 1~20번 원소의 전자 배치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시간 단축에 용이합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은 주기율표상의 원소 배열과 원자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등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학습한 후 서로 비교하여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II.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화학 결합 유형과 분자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단원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이온 결합 단원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성과 결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결합과 결합의 극성 단원에서는 각 원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자의 구조와 성질 단원에서는 전자쌍 반발 이론 기반으로 분자 구조와 결합각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소 결합, 반데르발스 힘 등의 상호작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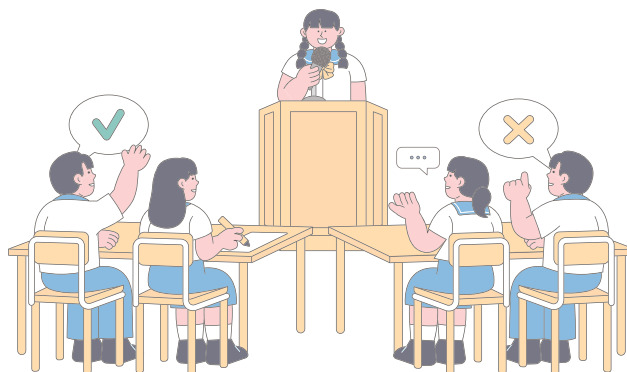
#### IV.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 단원은 중화반응에 해당하는 단원으로 계산 문제와 그래프 해석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정확한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적 평형 단원은 평형 상태의 개념과 조건 변화에 따른 반응을 중심으로 학습하면 좋습니다. 산 염기와 중화 반응 단원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와 pH 계산, 중화 반응식 설정을 통해 양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화 환원 반응과 열 변화 단원에서는 산화수의 판단, 반응의 흡열/발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화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기반으로 pH, 몰농도, 열량 문제를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뢴스테드-로우리 개념과 같은 산과 염기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흡열/발열 반응에 따른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므로 기출문제 학습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학은 어느 과목보다 타임어택에 가까운 시험입니다. 타임어택은 개념의 확실한 숙지에 기반한 빠른 문제 풀이를 요구하는 시험 유형이므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하시는 동시에, 많은 문제를 통한 양치기를 병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과학탐구영역 공부법 - 생명과학 I

세종우리누리 12기 멘토 윤 지 은

생명과학 I 과목은 크게 비유전과 유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전 파트에서 자주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비유전 파트에서도 고르게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특강 단원별로 구분한 각 단원별 추천 학습 방법입니다

## I. 생명과학의 이해

이 단원은 생명체의 공통된 특성과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합니다. 물질대사,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같은 생명체의 특성이 사례와 함께 제시되므로 대표적인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시면 됩니다.

## II. 사람의 물질대사

이 단원은 에너지 획득과 생체 대사의 원리를 다룹니다.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도 단순 암기보다는 대사 경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이할 때에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단원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단원에 비해 암기하지 않으면 헛갈릴 수 있는 선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소화와 대사 과정에 따른 각 요소들을 명확하게 암기하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 III. 항상성과 몸의 조절

이 단원은 최근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으로, 자극의 전달 경로를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 반응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알고 신경의 흥분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항상성 부분에서의 체온, 혈당, 삼투압 조절 등의 조절 메커니즘을 관련 호르몬의 분비 조건, 표적기관, 작용 기전과 엮어 세부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방어 작용에서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비교하고 항체 생성 과정과 백신의 원리를 함께 정리하면서 그래프나 도표를 분석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 듯이, 뉴런 간 이루어지는 신경전달과정이나, 근수축과 관련된 내용은 요즘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이전 단원들보다 더욱 꼼꼼히 개념을 확인하고, 길러 문항을 풀어보며,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단원입니다.

흥분의 전달과 전도 과정과 근육의 수축 및 이완에 대해서 어떤 시각자료가 나오더라도 무리 없이 추론하여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시길 추천드립니다.

#### IV. 유전

이 단원은 가계도 분석 훈련을 통해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우열 관계, 복대립 유전, 성염색체 연관, 비분리 등의 다양한 유전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풀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병 단원에서는 다양한 유전병의 유전 방식, 유전자 및 염색체 이상 사례를 정리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V. 생태계와 상호작용

이 단원은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계층적 구조와 함께 경쟁, 포식, 기생과 같은 생물 간 상호작용의 개념과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에너지의 흐름과 탄소와 질소 같은 물질의 순환은 그림을 통해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프 해석이나 생태계 모델 제시형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시각 자료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학탐구영역 공부법 - 지구과학 I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김 현 지

2027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구과학 I 의 단원은 ① 고체 지구, ② 대기와 해양, ③ 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과 '통합과학 II'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 '통합과학 II'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을 잇는 과목이지만, 일부 내용 영역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I 과 연관 있는 내용 요소로는 '판구조론과 지각 변동',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별의 진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지구과학 I 의 고체 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과학 I 단원별 공부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 영역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① 고체 지구

고체 지구의 세부 단원은 1. 판 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 2. 판 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3. 퇴적암과 지질 구조, 4. 지구의 역사의 4개로 구성됩니다. 먼저, 1. 판 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 단원에서는 판 구조론의 정립, 지질 시대의 대륙 분포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판 구조론이 정립하기까지의 여러 이론들과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근거가 어느 시대를 나타내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로는 음향 측심 자료나 심해 퇴적물의 두께, 고지자기 줄무늬 등이 제시됩니다. 해당 단원 외에도 지구과학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론을 공부하며 어떤 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자료의 유형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2. 판 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에서는 판 경계의 종류나 마그마의 종류, 화성암의 분류 등 한 카테고리에 대한 다양한 분류를 배웁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판 경계의 종류의 경우, 판 경계의 종류별로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형에서 발생하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판 경계의 종류별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에서는 판 경계의 종류를 문제에서 주지 않고 자료를 해석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마그마나 화성암도 동일한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다면 그 뒤로는 간단한 이론의 암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퇴적암과 지질 구조에서는 이전 단원에 나왔던 화성암의 분류보다 복잡한 퇴적암의 분류에 대해 배웁니다. 이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적 구조는 시각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도 있으므로 그림과 함께 이론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지질 구조는 뒤에 이어지는 4. 지구의 역사 단원에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부정합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4. 지구의 역사에서는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이때 화석이 활용되기도 하므로 시대별 대표 생물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② 대기와 해양

대기와 해양의 세부 단원은 5. 대기의 변화, 6. 해양의 변화, 7. 대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의 3개로 구성됩니다. 이번 단원은 대기와 해양에 관한 내용을 다루므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의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5. 대기의 변화에서는 기압과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온대 저기압이 전선과 어떤 관계가 있고 구역별로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입체적으로 떠올리며 암기하면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자료가 입체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등압선이 그려진 지도나 그래프를 줍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도가 나타내는 정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6. 해양의 변화에서는 해수의 성질에 대해 배웁니다. 해수의 다양한 성질이 어떤 요소로 인해 변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염분은 표층 염분이 증발량과 강수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을 응용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수온 약층, 밀도, 용존 기체 등 다양한 정보가 활용됩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해수의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을 같이 다루고 있으므로 각 순환을 구분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대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내용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됩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도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지만, 문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공되므로 여러 문제를 풀며 정보를 어떻게 주는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우주

우주의 세부 단원은 8. 별의 특성, 9.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10.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의 3개로 구성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구과학의 몇 안 되는 수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는 수식은 모두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8. 별의 특성에는 별의 물리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별의 물리량 중에 겉보기 등급을 알고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 정보를 알면 절대 등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의 반지름과 관련된 수식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L = 4\pi R^2 \sigma 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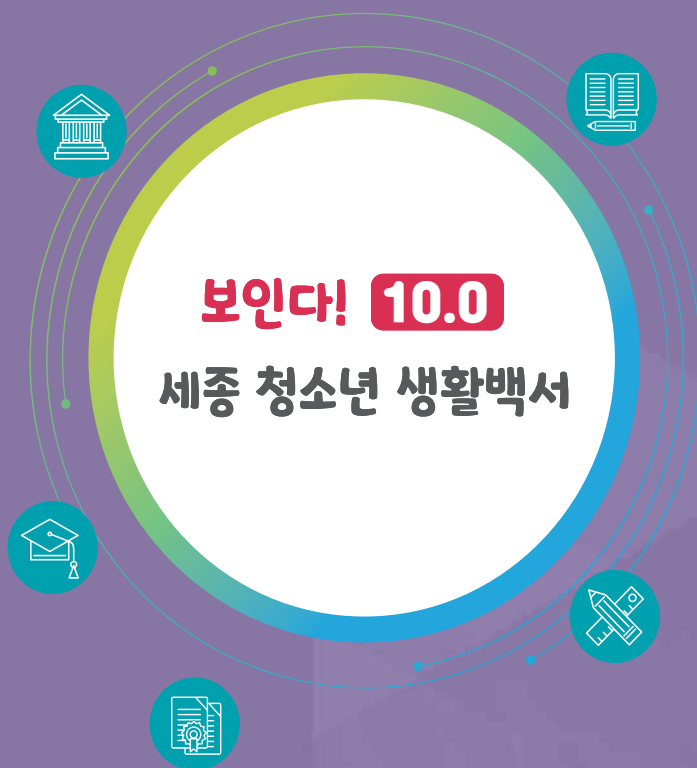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표면 온도를 알아내고, 별의 절대 등급을 이용하여 별의 광도를 알아내면 위 수식에 따라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곱과 네제곱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별과 관련된 각 물리량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리량으로 다른 물리량을 유추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물리량의 관계를 연관 지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 쉬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을 시선 속도 변화, 식 현상, 미세 중력 렌즈, 직접 관측 등으로 나누어 배우는데, 크다, 작다를 헷갈리는 등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0.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서는 은하의 분류에 대해 배웁니다. 은하 분류를 가지치기 형태로 구분해서 암기하고 은하별 특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은하는 허블의 분류 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각 우주론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인다! 10.0**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3부

## 교양 칼럼



## 고(苦)에서 ‘지안(至安)’으로

세종우리누리 14기 멘토 철학과 이채은

우리의 삶은 고(苦)다.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인간 육체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오는 고(苦)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모두 고(苦)다. 현대인들은 고(苦)에 둘러싸여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감각에 잠식된 채 슬퍼하고, 회의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 어쩌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나의 괴로움과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苦)는 궁극적으로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끊임없이 대상에 집착하게 하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그 대상이 감각적인 대상이든, 시간처럼 비실재적인 것이든, 괴로움의 조건인 욕망은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결핍을 만들어 낸다. 결핍은 또다시 욕망을 만들어 내고, 끝없는 욕망의 굴레는 나의 내면에서 타자에게까지 뻗어나가 혐오와 분노의 성향을 끌어낸다. 혐오와 분노의 대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난과 혐오로 맞서게 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달리고 집착한다. 또다시 고(苦)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苦)의 반복 속에서 나라는 실체적인 자아를 유지하고,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 끝없이 집착하며 괴로워한다.

2018년 tvN에서 방영된 김원석 연출, 박해영 극본의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극본상, 작품상을 수상하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삶의 고통을 담아내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 지안(아이유)은 여섯 살에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져 사재를 갚으며 힘겹게 살아간다. 자신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비록 정당방위 판정을 받긴 하였으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었다. 동훈(故 이선균)은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불편한 상황들을 버텨나가야 하고, 철없는 형과 동생, 어머니의 처지도 살피야 한다. 게다가 아내인 윤희(이지아)는 대학 후배이자 대표이사인 준영(김영민)과 불륜 관계다. 동훈의 동생인 기훈은 독립영화계에서 천재 감독이라는 평을 받으며 기대를 받았지만, 첫 장편 제작 중 영화가 었어지고, 영화계를 떠나 첫째 형 상훈(박호산)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후계동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정희네 술집의 주인인 정희(오나라)는 과거 연인이었던 상원(겸덕, 박해준)이 출가해 승려가 되어버린 후부터 20년이 넘게 방황하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하루를 살아간다. 이처럼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어딘가 결핍되어 있으며, 괴로움 속에 파묻힌 일상을 꾸역꾸역, 버텨내듯 살아간다. 우리는 드라마 속 고(苦)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

<나의 아저씨> 속 등장인물들의 고통 상황뿐만 아니라 현실 속 우리의 고통 상황은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 불교의 출발은 고통에 대한 통찰에 있으며, 목적은 고통의 극복을 통한 열반 도달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4가지 진리로 여기는 ‘사성제(四聖諦)’ 중 하나인 ‘고성제(苦聖諦)’는 고통이 삶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비탄, 슬픔, 탄식 등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형태의 괴로움 역시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集聖諦)’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욕망, 집착, 그리고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무상(無常)’, ‘무아(無我)’의 실상에 ‘무지(無知)’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sup>1)</sup> 이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파괴하려는 욕망 등은 불쾌하고

1) 무상(無常, anicca), 무아(無我, anatta), 고(苦, dukkha)는 초기 불교의 경전에서 제시하는 삼법인(三法印)에 속하는 개념이다. 이후 대승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으로 보기도 하며,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을 포함한 사법인(四法印)으로 보기도 한다. 무상은 ‘영원한 것은 없음,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의미이며, 무아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달갑지 않은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려는 충동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향할 때, 자기부정을 통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파괴 행위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런 불교의 관점에서 본 <나의 아저씨> 속 등장인물들은 어떠한가? 먼저 동훈은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로 앉아 있는 회사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며, 원증회고(怨憎會苦)<sup>2)</sup>를 느낀다. 또한, 실체 없는 자아에 집착하고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나의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큰 고통을 느낀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인식하지 못해 집착함으로써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아래의 대화를 보면 이런 동훈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동훈 :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지안 :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동훈 : 몰라. (중략) 다들 평생을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데, 뭘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그냥 다 아닌 것 같다고.(8화 中)<sup>3)</sup>

동훈은 고(苦)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주문처럼 사용한다. 극 중반에서도 동훈은 삶에 권태를 느끼고 인간과의 만남에 괴로움을 느끼는 지안에게 ‘모든 척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원인과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주문을 외우던 동훈은 결국 몰아치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채 무너진다.

기훈은 독립영화계에서 천재 감독 소리를 들으며 야심차게 첫 장편영화 제작에 착수하지만, 제작 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 중단하게 되고, 조감독 일을 전전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이 오래 공들인 대본을 넘긴 선배 감독에게 또다시 연봉 오백에 조연출을 맡으라는 말을 들은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을 날린 후 영화계를 나온다. 그리고 그는 대형 상훈과 함께 청소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기훈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 구부득고(求不得苦)<sup>4)</sup>의 굴레에 빠져 있다. 이러한 고통을 애써 외면하던 기훈은 청소 일을 하던 중 첫 장편 데뷔작이 될 뻔했던 영화의 여주인공 유라를 만나고, 다시 그 고통의 상태를 유라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 표출한다.

정희는 과거를 놓지 못한 채 집착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상원이 출가를 결심하고 자신을 떠난 후 20년 동안 그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sup>5)</sup> 속에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슬퍼하는 그녀는 상원을 향해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때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라며 절규한다. 이처럼 정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인정하지 못한다.

2) 팔고(八苦) 중 하나로, 싫은 대상, 증오스러운 대상과 만나야 할 때 느끼는 고통을 의미한다.

3) 나의 아저씨, 에피소드 8, 연출 김원석, 각본 박해영, 2018.04.05. 방영, tvN

4) 팔고(八苦) 중 하나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의미한다.

5) 팔고(八苦) 중 하나로, 헤어질 때 느끼는 괴로움, 행복하게 했던 대상이 사라지거나 행복했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고통 상황 속에서 불교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불교의 사성제(四聖諦) 중 나머지 멸성제(滅聖諦)와 도성제(道聖諦)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멸성제(滅聖諦)에서는 번뇌가 제거될 때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에서 벗어난 ‘열반’<sup>6)</sup>의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도성제(道聖諦)’에서는 실천적인 방법인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sup>7)</sup> 결국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 고통의 원인과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고통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작을 ‘마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것으로 본다. 고통을 유발하는 조건들을 인식해야 그 조건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이 이루어질 때야 번뇌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세속의 가치와 무지,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앎이 체득될 때, 진정으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포용성의 마음인 ‘자애(慈)’로서 타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고통 해소도 이런 불교적 해결책과 맞닿아 있는 듯하다. 고통 상황 속에 놓인 동훈, 기훈, 정희 모두 고통을 주는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서를 직시하고, 수용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동훈은 아내의 불륜과 지안의 도청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후, 더 이상 고통 상황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다. 어떻게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외면하고 집착하던 동훈은 자신의 감정과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직시하면서, 회사에서 나와 새로운 길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직면할 수 있게 도와준 지안을 더 이상 밀어내거나 적대시 하지 않고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녀를 포용한다. 그리고 그의 공감은 지안을 치유한다. ‘지안(至安).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마지막, 지안을 향한 동훈의 물음에는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 이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애(慈)’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훈 역시 자신의 괴로움을 유라에 대한 비난과 분노로 표출해왔음을 직시한 후,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기훈 : 10년 전에 너랑 찍던 그 영화, 찍으면서 알았어. 망했다. 큰일 났다. 찍어서 걸면 백 프로 망하고 난 재기도 못 할 것 같았어. (중략) 그래서 네 탓하기로 한 거야.(12화 中)<sup>8)</sup>

기훈의 사과에 유라 역시 용기를 얻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고, 후에 기훈 역시 다시 펜을 잡고 글을 쓰게 된다.

정희도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해 자신을 만나러 온 상원과의 대화 후 그와의 이별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윤상원은! 우리의 추억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20년 동안 놓지 못하고 집착하던 그를 마침내 놓아준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마침내 현실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또한, 자신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지안에게 1년에 두 번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 지안이 약속을 받아들이자, 정희는 또 외친다. ‘인생 숙제 끝!’

6) 열반이란,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번뇌-탐진치(貪瞋癡)-가 소멸된 상태로,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다.

7) 팔정도란, 쾌락과 고통 두 극단을 벗어난 ‘중도(中道)’의 길로서 삶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견(正見, 바른 견해), 정사유(正思惟, 바른 사유/의향), 정어(正語, 바른 말/언어), 정업(正業, 바른 행위), 정명(正命, 바른 삶/생계수단),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 정념(正念, 바른 마음 챙김), 정정(正定, 바른 삼매, 고요하게 집중된 상태)가 이에 속한다.

8) 나의 아저씨, 에피소드 12, 연출 김원석, 각본 박해영, 2018.04.26. 방영, tvN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과 마주함으로써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고 나의 괴로움을 통찰하기보다는 외면하고, 회피하며 그 분노와 혐오를 타인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의 태도는 ‘무지(無知)’한 우리에게 나의 고통을 돌아보고 감정을 직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한 ‘자애(慈)’로 나아갈 것을 제시한다. 우리는 모두 연기(緣起)적 존재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포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불교적 자애(慈)’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외로움이 가득한 현대사회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지안(至安)’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 Point 1.** 위 글은 초기불교의 ‘사성제(四聖諦)’를 드라마에 적용하여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철학 사상을 적용시켜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 혹은 삶의 경험, 사회적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 Point 2.** 불교의 핵심 개념은 ‘연기(緣起)’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조건 발생적이며,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서로를 향한 혐오와 경계 짓기에 관해 고찰해봅시다.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핵심 주제로 삼아 타자와의 관계와 치유에 관해 논해 보아도 좋습니다.
- Point 3.** 초기 불교의 사상은 장자의 「제물론」에서 제시하는 고정된 경계를 허무는 ‘무궁(無窮)’의 태도와도 연결 지어볼 수 있습니다. 타자와의 조우와 소통을 통해 존립하는 우리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찰해본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Point 4.** 불교의 ‘자애(慈)’는 단순한 연민이 아닌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드라마 속 동훈이 지안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포용하며 그녀의 행복을 바라게 되는 과정은 ‘자애(慈)’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애(慈)’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피로하고 냉소적인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공감과 포용이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 Point 5.** 현대사회의 고(苦)란 무엇일지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세요. 행복에 관한 서양철학자들의 논의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문학 칼럼 2]

## 세상에 나쁜 환대는 없다.<sup>1)</sup>

-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과 듀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을 읽고...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철학과 장 동 휘

### ▶ 환대에 대하여(De l'hospitalité)

이방인을 우리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환대는,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개인과 집단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 본격적으로 '환대' 개념이 '데리다'<sup>2)</sup>에 의해 철학적·정치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는 프랑스의 파스쿠아법의 시행 이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된 이방인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에 대해 철학자로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sup>3)</sup> 그는 환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사회가 당면한 이방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는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소외되는 타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유토피아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환대인 '조건적 환대'를 역설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환대는 곧 제한과 한계를 의미하므로, 환대 그 자체에 미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환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이다.<sup>4)</sup> 데리다는 우리가 권리나 의무 심지어 정치까지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환대와 권리와 의무로 한정된 조건적 환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할 것이라고 본다.<sup>5)</sup> 그리고 이러한 번민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이상향 곡선을 그리며 우리의 목을 조르며 드리우고 있다. 그는 이 목 졸림, 즉 무조건적인 환대와 조건적 환대의 아포리아를 견뎌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율배반적인 두 환대의 갈림길 속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선택하고 환대하며 상처 입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 『지구 끝의 온실』과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 속 조건적 환대

『지구 끝의 온실』과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보존이 보장되지 않은 재난 상황 속 일어나는 환대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는 철저히 조건적이다. 『지구 끝의 온실』에서 보이는 환대는 이방인들을 철저히 선택하고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이 비추는 환대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공간적으로 격리한 후, 그들에게 머무는 것을 허락한다.

『지구 끝의 온실』속 '프림빌리지'에서의 환대는 이방인의 유용성, 즉 이방인이 온실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들을 가치-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컨대, 지수가 처음 대니 일행을 받아준 것은 그들의 '들어옴'이 지수와 레이첼 자신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공동체의 일원이 된

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오마주

2)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 ~ 2004)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구조주의 철학을 비판하고, 구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해체주의를 주창했다. 기존 철학에서 중심부라고 여겨지던 '주체'와 주변부라고 여겨지던 '타자'의 이항대립을 해체하고자 한 그의 해체론은, 환대, 애도, 용서 등 일자와 타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3) Derrida, J./Dufourmantelle, A., 『환대에 대하여』, 이보경 옮김, 필로소픽, 2023, 230쪽

4) 이현오, 「이방인 문제와 환대의 아포리아 :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2019, 28; 32쪽.

5) 자크 데리다 외, 위의 책, 197쪽.

6) 이현오, 위의 논문, 83쪽.

대니 일행이 그다음 이방인들을 받아준 것 또한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에서의 환대도 마찬가지이다. ‘장미 고래’의 거주민들은 ‘해바라기 고래’의 난민들을 1킬로미터 떨어질 것을 조건으로 환대한다. 장미 고래의 거주민들은 이방인들에게 각종 구호 물품을 제공하지만, ‘고래병’으로 자신들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들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그들의 배를 범죄자인 의사를 추방하는 용도로 이용한다.

이들의 환대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환대를 비판해야 하는가? 애초에 우리가 이들의 환대를 비판할 수는 있는가?

### ▶ ‘환대할 수 있는 자’와 ‘환대하지 않는 자’만 있다

『지구 끝의 온실』과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이 제시하는 환대는 분명 조건적이다. 인격체로서의 이방인에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져다 대고, 그 기준에 맞추어 가치-판단하여 환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작품이 그리는 환대의 모습이 정말 비판하는 것에 그칠 만큼 아쉬운 양상의 환대였는가 묻는다면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비록 유용성이 그 기준이었지만, 지수는 상처 입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 장미 고래의 거주민들도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을 기준 삼긴 했지만, 그들에게 밧줄을 묶어주고, 의사를 보내주며, 과일을 제공했다.

이들의 환대가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가? 비록 조건적이었을지라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영역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구 끝의 온실』과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 속 환대의 양상은 비록 조건적 환대임에도 우리에게 ‘환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가능성은 목숨과 삶의 터전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상처 입은 타자의 방문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자, 주인과 이방인이 적어도 공존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가능성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환대의 갈림길을 마주했다. 전쟁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닌, 환경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고래’를 잃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프림빌리지’의 여성들처럼, 혹은 ‘장미 고래’의 주민들처럼 상처 입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20년 UN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한국인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53%로 과반을 웃도는 반면, 찬성하는 여론은 33%로 나타났다.<sup>7)</sup> 이뿐만이 아니라, 2023년 입소스의 난민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쟁이나 박해로 나라를 떠나는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55%가 동의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74%)보다 19%p 낮은 결과인 동시에, 조사 대상인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와 달리 받아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29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sup>8)</sup>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가 적대를 선택한 ‘돔 시티’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구 끝의 온실』과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작품들이 보여주는 환대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시민적인 면모를 갖고 있기에 더 가치를 갖는다. 우리는 결코, 그들만큼의 조건적 환대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7)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UNHCR Republic of Korea, 2021. <https://www.unhcr.org/kr/news/bodojalyo/yuennanmingigu-daehanmingug-nanmin-insig-byeonhwa-josa>

8) 난민수용에 따른 변화와 지원 정책, 한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입소스(Ipsos), 2023. <https://www.ipsos.com/ko-kr/%EB%82%9C%EB%AF%BC-%EC%88%98%EC%9A%A9-%EB%B3%80%ED%99%94-%EC%A7%80%EC%9B%90%EC%A0%95%EC%B1%85-%ED%95%9C%EA%B5%AD%EC%9D%B8%EB%93%A4-%EC%9D%B8%EC%8B%9D>

데리다는 두 환대의 아포리아 가운데서 굳이 ‘견딜 것’을 강조했다.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라는 것도 아니다. 견디는 것은 묵묵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환대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지만, 그런 사변적인 논의 가운데서도 환대의 실천이 멈추어선 안 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환대의 갈림길을 마주했다. 이 갈림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좁아지고 험해될 것이다. 두 작품이 전해주는 환대의 가능성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생각한다. 세상에 나쁜 환대는 없다. 환대는 그 자체로 이미 환대이며, 이방인을 받아들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이미 환대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환대하지 못하는 우리는 다가오는 갈림길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보다도, 두 작품이 보여주는 환대의 자세, 적어도 상처 입은 이방인들을 받아주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 Point 1.**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타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타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Point 2.** 환경 문제는 환경 난민이라는 이방인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과학적 관점이 아닌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 Point 3.** ‘환대’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은 근대 이후로 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재 중 하나였습니다. 김초엽과 듀나의 두 소설 이외에도, 이방인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찾아 읽어보고, 환대의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 참고문헌

Derrida, J./Dufourmantelle, A., 『환대에 대하여』, 이보경 옮김, 필로소픽, 2023.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UNHCR Republic of Korea, 2021. <https://www.unhcr.org/kr/news/bodojaljo/yuennanmingigu-daehanmingug-nanmin-insig-byeonhwa-josa>

**이현오**, 「이방인 문제와 환대의 아포리아 :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2019.

**입소스**, 난민수용에 따른 변화와 지원 정책, 한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입소스(Ipsos), 2023. <https://www.ipsos.com/ko-kr/%EB%82%9C%EB%AF%BC-%EC%88%98%EC%9A%A9-%EB%B3%80%ED%99%94-%EC%A7%80%EC%9B%90%EC%A0%95%EC%B1%85-%ED%95%9C%EA%B5%AD%EC%9D%B8%EB%93%A4-%EC%9D%B8%EC%8B%9D>

## [인문학 칼럼 3]

## 차별과 고립, 그리고 망각의 역사

세종우리누리 1기 멘토 사학과 정 중 연

## ▶ 사회적 죽음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수인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쉴 수가 없다. 모두가 절망적일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혼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하나의 정의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는 인류사 전반에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는 것은 인간의 삶이 단순히 한 개인의 시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며 삶을 영위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것일까? 프리모 레비는 위의 책에서 수인 생활이 오직 개인의 생존만을 위한 관계성의 단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계성이 단절되어 생존만을 추구하는 과정을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멈추다’라는 말은 고대 로마에서 ‘죽다’와 동의어였으며 이는 인간이 오직 생존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sup>1)</sup>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타인이 자신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 존재가 망각되는 것이고 망각은 결국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망각되는 자는 죽음 후 역사 속이나 사람들을 통해 기억되는 자보다 더욱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으나 망각되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망각으로 사회적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하여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유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척의 역사와 그들의 저항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나타나는 치안 유지와 구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도미야마 이치로의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립의 역사 중 한센인들에게 가해진 100여 년간의 고립과 차별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수 속에서의 이질적인 집단, 사회의 안과 밖으로 구획된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그들의 사회적 죽음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 ‘그들’과 유대인의 구분

유럽 사회에 선입견과 차별로 인해 나타난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 대표적인 집단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럽사회에서 이방인이자 동화되어야 할 존재였다.

1) 양창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 《오늘의 문예비평》 제111호, 2018, 100쪽.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라는 큰 차이점을 보여 주었으며, 대부분 금융업에 종사하여 중세사회의 금욕이라는 사회적 가치관과 대척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차이점은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을 지칭하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 즉 사회적 이방인을 뜻하는 ‘파리아’와 이방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자기를 변형시키며 동화(同化)에 성공한 사람 ‘파브뉴’는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sup>2)</sup> 그들은 유럽 사회에 동화되기를 강요받았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 사회 속에 있지만 이질적인 종교와 금융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유럽사회에서 암묵적인 혐오와 차별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시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유대인 애호 현상’이 나타나 유대인이 환영받기도 했는데 귀족들에게 유대인은 함께 사는 동료로서가 아닌 ‘비정상성’에 대한 호기심과 매혹을 바탕으로 특별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sup>3)</sup> 이러한 유대인이라는 존재의 ‘비정상성’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감은 유럽 사회에서 뿌리 깊게 존재하였고 이는 오랜 역사에서 비유대인과 유대인을 구분 짓고 차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다수의 비유대인에 의해 나타나는 관계 단절과 이로 인해 이어지는 사회적 죽음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렌트는 그의 책에서 모호하고 취약한 위치를 전유하여 차별적 구조를 넘어서는 파리아 모델을 바탕으로 네 유형의 파리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형상은 각기 자기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sup>4)</sup> 여기서 네 형상은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차별과 배척의 세상에 정치적 행위로 반항하거나, 그들의 사회를 풍자하며 비판하거나, 일상에서 벗어나 사유를 통해 그들의 실재를 유지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저항은 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무응답으로 인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거대한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의식적 차별 속에서 그들의 존재와 관계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하였고 이러한 저항을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저항과 자기 표출을 위한 ‘말’에 대하여 비유대인들은 무응답과 무관심의 태도로 일관했다. 소통은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의견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무경청과 무응답의 태도는 그들에게 저항이라는 행위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유럽 사회의 구성원이었지만 ‘그들’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차별로 이어졌고 이러한 차별은 그들을 공간적, 인식적으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다수인인 또 다른 ‘그들’의 무관심과 응답의 부재로 이어졌고 가해자와 수많은 방관자가 만들어낸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 ▶ 치안과 고립의 사이에서

다음은 국가와 자국민이라는 영역의 경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과 밖 경계선을 살아간 ‘오키나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보장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치안을 유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킨다는 개념은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법을 넘어 공동체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그 공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차단하거나 대피해야 할 상황을 늦추면서 혼란스러운 사태를 안일하게 해소하지 않는 점을 보여 주었다.<sup>6)</sup> 이처럼 국가가 재난에

2) 양창아, 「파리아(pariah)의 정치」, 《철학논총》 제96권, 2019, 467쪽.

3)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45-47쪽.

4) 양창아, 「파리아(pariah)의 정치」, 《철학논총》 제96권, 2019, 473쪽.

5) 양창아, 「파리아(pariah)의 정치」, 《철학논총》 제96권, 2019, 475-479쪽.

6) 도미야마 이치로, 『유착의 사상』, 심정명 옮김, 글항아리, 2015, 90-98쪽.

대하여 정보를 차단하거나 이재민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며 한 지역에 고립시키는 행위가 치안이라는 명분으로 행하여졌다. 특히 이러한 치안과 고립 사이에서 나타나는 질문은 관동대지진과 일본의 계엄령을 비롯한 ‘오키나와 문제’를 다룬 히로쓰 가즈오의 『떠도는 류큐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히로쓰가 『떠도는 류큐인』을 발표한 후 이 작품에 대한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서를 받았는데 이 항의서는 히로쓰의 작품이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sup>7)</sup> 이 소설이 쓰여진 1926년은 오키나와에 소철 지옥이라는 심각한 경제 불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던 시기였다. 오키나와 문제는 단순히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류큐인에게 책이나 돈을 빼앗기기도 한다. 히로쓰는 이러한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를 류큐인이 소속된 고향의 문제와 연관시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맥락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비난받고 처벌되어야 할 이러한 개인범죄의 문제를 오키나와의 역사에 중첩해 연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sup>8)</sup> 이는 오키나와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며 국가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떠도는 류큐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사기나 절도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역사와 함께 생각하려 했다는 것을 병적이라고 기술하고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정신 차려!’라는 호령을 붙이고 있다.<sup>9)</sup> 이 군사적 호령에서 반성은 오히려 봉인된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을 향한 반성의 호령이 아니라 그를 향한 비판에 대한 반발의 외침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관동대지진에서 당시 정부가 취했던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한 계엄령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계엄령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과 적용이 제한되고 군대를 통한 임의적인 폭력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군대, 경찰 등의 심문체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런 계엄령 하에서 오키나와인들은 끊임없이 심문에 노출되었고 오해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폭력이 진행되었다.<sup>10)</sup> 그리고 이러한 치안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살인은 이후에도 꾸준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심문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존재를 ‘정신 차려!’와 같은 호령으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증명해야 했던 것이다.

### ▶ 만들어진 소록도

마지막으로 타민족도, 사회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 자국민임에도 질병으로 삶의 전체를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소록도 한센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센병은 면역기능이 약할 때 피부의 감각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체의 변형을 만들어내는 병으로 외형적으로 변형이 드러나 살이 썩는다는 의미에서 나병(癩病)이라 부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전국의 한센병 환자를 모아 소록도에 격리 조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록도 환자들은 강제로 소록도에 수용되었으며 이는 환자들의 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 유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강제수용은 오히려 한센병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그들은 격리되어야 할 존재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타민족에 대한 통제와 치안 유지 명목으로 만들어진 소록도라는 공간은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일반인과 격리하는 공간으로 유지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정부는 군의 협조를 통해 나환자 120여 명을 소록도로 강제 이송하여 수용할 계획을 밝혔고, 그다음 해에도 나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록도로 강제 이송 및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sup>11)</sup>

7)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제7권, 2012, 90-91쪽.

8)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제7권, 2012, 97-101쪽.

9)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제7권, 2012, 103쪽.

10)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제7권, 2012, 108-109쪽.

11) 김재현,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 1916-2016』, KIATS, 2016, 139쪽.

1960년대에는 소록도인들에게 새로운 땅을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오마도 간척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보호 장비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센인 중심의 노동으로 진행되었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소록도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까지 일어났다. 이는 간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업 중심의 주민 생업을 위협한다는 것과 동시에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이 주 근거였다.<sup>12)</sup> 결국, 오마도 간척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한센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고립이 만들어낸 소록도라는 공간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소록도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보상 및 해결 노력이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다. 대한민국 내 한센인의 격리와 폭행 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2005년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자 6,462명을 공식 인정했다.<sup>13)</sup>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식민지배 기간 동안 이방인이자 식민지인으로서 구별되었고 식민지인 중에서도 한센인이라는 선입견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그들은 치안 유지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국민으로부터의 차별을 여전히 감당해야 했다.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자국의 치안 유지라는 명분으로 소록도라는 공간에서 고립된 채 삶을 살아왔다. 아렌트는 자기가 사는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곳의 ‘공적인 일’에 그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에게 사람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4)</sup> 소록도 한센인들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주류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추방되어 사회적 죽음을 겪어 왔다.

## ▶ ‘그들’의 기억과 응답

지금까지 유럽 사회에서의 유대인, 일본에서의 오키나와인, 그리고 소록도 한센인을 통해 차별과 고립의 역사를 들여다보았다. 이들은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라는 구분으로부터, 한 국가가 포함하는 국민의 경계로부터, 그리고 자국민의 선입견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립되었고 차별받았다. 그들은 다수의 지배라는 원리 아래에 소수로 차별받으며 권리 또한 박탈되어 그들을 둘러싼 사회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여 왔다. 사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는 희생당하거나 잊혀간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나 아렌트는 승리자의 역사,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역사 개념을 거부하는데 역사의 주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시간은 과거를 향해 거꾸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5)</sup> 역사의 주체를 하나로 선정하고 시간이 무조건 진보를 향해 전진한다면 소수자는 같은 공동체가 아닌 걸림돌의 대상으로서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다. 치안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수용소와 계엄령과 같은 공간분리에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모두의 이익과 동의어(同義語)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진보라는 명분으로 나타난 불평등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억과 응답에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 투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고립이 나타난 원인은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방관자와 가해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발화의 부재보다 응답의 부재에서 불평등한 관계의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기에 이는 사회적 이방인에게 ‘말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사회에도 ‘들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sup>16)</sup> 자신의 권리마저

12) 김재현,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 1916-2016』, KIATS, 2016, 176쪽.

13) 김재현,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 1916-2016』, KIATS, 2016, 237쪽.

14)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161쪽.

15) 양창아, 「파리아(pariah)의 정치」, 《철학논총》 제96권, 2019, 108쪽.

16) 양창아. 앞의 논문, 2019, 487쪽.

보장받지 못하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잊혀가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프리모 레비의 책 제목인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물음은 당시 유대인들을 고립시킨 나치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처참히 홀로 생존해야 하는 수인들의 삶에 대한, 무엇보다 당시 처참한 상황과 수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수많은 방관자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외면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한 수많은 방관의 자세에 대해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누구나 무자비함과 무관심 속에서 고립되어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발화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인간인가’라는 냉정한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야 한다.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는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Point 1.** 이 글의 사례 또는 유사한 사례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Point 2.** 자신이 생각하는 ‘다수’와 ‘소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관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Point 3.**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 참고문헌

김재현,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 1916-2016』, KIATS, 2016.

양창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 《오늘의 문예비평》 제111호, 2018.

양창아, 「파리아(pariah)의 정치」, 《철학논총》 제96권, 2019.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제7권, 2012.

도미야마 이치로, 『유착의 사상』, 심정명 옮김, 글항아리, 2015.

## 능력주의 시대, 그 인식에 대한 고찰

세종우리누리 1기 멘토 철학과 정 중 연

한센인들의 소외된 아픔을 그린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자유라는 건 싸워 빼앗는 길이 되어 이긴 자와 진 자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사랑은 빼앗음이 아니라 베푸는 길이라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없이 모두 함께 이기는 길이거든.’<sup>1)</sup>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단어나 시대로 요약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설 속 표현되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학술적 의미로 옳고 그른가에 대해 논하는 것을 떠나 거시적으로 보면 인류의 과거는 소설에 담긴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자유는 승패를 구분하는 경쟁적인 것으로 표현되었고 사랑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승패를 초월한 가치로 표현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승패를 통한 경쟁만으로, 또는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의 의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두 가치의 불가분 관계 속에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시간이 문자로 기록된 순간부터 개인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을 만들었고 그 집단들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배려라는 이름 하의 공생으로 공동체의 내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집단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했고 이는 자연적 현상에서 시작해 종교적 원리, 사상적 가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역할은 계급이 되었고 계급이 분화하면서 역할에 따른 계급이 아니라 계급에 따른 역할로 그 명분과 목적이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사상적 변화는 계급을 넘어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혁명으로, 나아가 기존 국가의 멸망과 새로운 국가의 탄생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라는 개념은 어느 시대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능력주의의 시대라는 개념은 오직 현대 사회에서만 그 가치가 국한될 수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현대를 과연 능력주의 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과거의 사례와 인식들을 바탕으로 능력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들을 평가하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능력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능력주의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차별성을 묻는다면 누군가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누군가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전 시대에 개인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대의 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전 시대가 담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지대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신분이 아니기에, 또는 문자와 같은 능력 평가를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차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신분이 낮은 경우 그 능력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한자나 라틴어와 같이 문자를 익히는 것이 대다수에게는 매우 어려웠기에 문자 자체가 곧 권력이 되어 능력을 습득하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통교육이 확립되고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지며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선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복지 등은 이전 시대와 달리 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1)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2013, 395-396쪽.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만으로 현대를 이전 시대와는 다른,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주의 혹은 능력주의 시대라는 거창한 단어로 치환해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능력이라는 범주는 선천적 재능 또는 후천적 노력과 같은 개인적 부분에 결부되어 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다. 결국, 개인의 능력은 이따금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혈연, 지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는가, 어떤 것을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능력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 불공정 등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이를 핵심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은 이전 시대보다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역사는 신분제를 비롯한 인종, 성별, 여러 격차로부터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격차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때로는 오히려 개인의 노력이 선천적인 격차에 의해 무가치해지는 경향 역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노력이 무가치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더욱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선천적인 격차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혈연을 비롯한 경제적 격차, 그리고 선천적인 재능의 요소들이 모두 능력주의와 부합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능력주의 자체에 대한 공정성 역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현대 사회 역시 선천적인 부분이 능력주의의 그림자 속에 상존하기에 능력주의의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모순은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되며 이는 경제적 격차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정보의 격차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선천적 요소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회 내에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곤 한다. 또한, 현대 사회는 능력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쟁 구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뛰어넘어, 타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독점하는 것이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극복하기 불가할 정도의 격차를 만든다. 나아가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노력은 세대가 거듭되며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부산물이 상속되어 후대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는 정보의 격차로 다시금 사람들을 구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지배층이 문자나 서적 등 한정된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던 양상과 유사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쟁체제와 정보 획득의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경쟁이라는 것은 자신이 뛰어남을 증명해야 하는 체제로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었기에 자신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소유한 ‘능력’을 이용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정보를 선점하고 한정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격차 속에서 정보 우위에 서는 것 자체 역시 하나의 ‘능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 획득이 개인의 후천적 노력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정보 역시 현대 사회의 신분이자 세습 작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란,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능력주의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는 ‘상대적 능력주의’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능력주의’ 속에 숨겨진 그림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능력주의가 옳다고 용인하는 경쟁 자체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보고자 한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소설 속 대목은 경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닌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승패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였다. 승패 자체에 대한 표현 역시 지적될 수 있으나 결국 특정 역할과 책임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을 통하여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 선천적 요소들이 강하게 적용되는 이상 특정 목표나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실패라는 낙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시도를 주저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대 사회의 경쟁이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 한정된 역할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선별하기 위한 미세한 조정에 집중하는 과정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경쟁이 낙오를 면하기 위한, 그리고 생존만을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여전히 선천적인 부분이 존재함을, 능력주의의 배경 속에서 경제 격차와 정보 격차를 비롯한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역할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들춰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은 과거에도 문제점으로 존재했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인류의 흔적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항상 존재했기에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우선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비롯해 경제적 격차와 혈연,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회 속 차별을 고려하면 해결 방법은 결국 기회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복지 체계, 그 가운데에서 보통 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기회가 경제 격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의사 표현을 더욱 자유롭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존재하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격차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정 정보의 획득만으로 경쟁의 결정적 격차가 벌어지는 평가 시스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다. 이는 어느 시대에서나 기회의 불평등을 느끼는 과정에서 제시되었기에 새로운 부분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다크라는 사회를 분석했던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아주 오래된 것들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구 사이의 오래된 연결 관계 속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sup>2)</sup> 결국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 인류가 늘 고민했으며 앞으로도 고민할 오래되고도 새로운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 격차의 문제를 처절하게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문자를 만들었던 세종대왕 역시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무모한 상상을 해 본다. 우리는 언제나 능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각각의 시대에서 능력의 개념이 다른 모습으로 정의되었으며 신분, 문자, 혈연, 지연 등이 능력으로 판단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인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능력주의의 시대에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 우리 스스로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미래의 과거가 될 것이며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언제나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2) Hodge, H. N., 『오래된 미래』,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007, 336-339쪽.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Point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희망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Point 2.** 현재 AI를 중심으로 상당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능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Point 3.** 기술 발전으로 나타난 산물이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일 경우 어떤 사회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참고문헌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2013.

Hodge, H. N., 『오래된 미래』,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007.



## 미니멀리즘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철학과 장 동 휘

상징적 교환이라는 추상적 대안을 제외하면,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일종의 해결 방안으로, 대중매체의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에 ‘침묵’하는 소극적 저항만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저항은 오히려 적극적 저항보다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중이 변화의 양상을 주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보드리야르의 논의는 소비에 너무 많은 것이 담기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는 ‘계급 간의 차이’를 등에 업고 있으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는 욕망’을 이정표로 삼는다. 이 이정표를 맹목적으로 가리키며 인간을 좌절시키고, 그 폭력성을 무차별적 폭력으로 승화시키도록 자극한다. 또한, 끊임없이 타인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에 안고 있다. 자본주의는 계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것이 자본—지칭하는 것이 문화 자본이든, 사회 자본이든, 상징 자본이든, 말 그대로의 ‘경제 자본’이든—을 통해 오를 수 있는 영역인 것처럼 묘사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계급을 상승시키려는 욕망, 주위의 사람들과 다른 계급에 놓인 것처럼 구별되고자 하는 욕망이 소비에 녹아 있으며, 이러한 소비는 기존의 자본주의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고, 그 안에 담긴 자본의 권력을 더욱 높은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드리야르는 소비를 유도하는 사회와 문화에 ‘침묵’함으로써 이에 저항할 것을 제안한다. 비-소비를 통해 소비가 내면화하도록 하는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소극적 해결 방안은 실천까지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비-소비는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소비를 통한 극복은 대중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기 때문에,<sup>1)</sup>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을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욕망에는 단순히 과시욕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구별 짓기’적 욕망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소비는 실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침묵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 철학자들처럼, 사상가들처럼, 사회운동가들처럼, 더 진보된 사회를 위해 욕망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온건한 방법부터 시작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 성공한 사상—즉, 사회 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상들—은 대중의 공감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완성되었다. 소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끊어내기 위해선, 대중이 공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적극적인 대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만 사회가 더욱 진보된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1) 김종호, 「도덕적 사회주의의 환상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계약론과 자본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2022, 29쪽.

따라서, 보드리야르가 논하지 않은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미니멀리즘적 소비를 제안한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소비 생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구적 이성인 선택한 ‘효율성’과 구별 짓기를 위한 ‘과시욕’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미니멀리즘(minimalism, 最小主義)은 최소를 추구하는 학문적, 예술적 사조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조가 생활 양식에 적용되며, 미니멀리즘이 적용된 ‘미니멀라이프’가 유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적 소비 패턴이 소비자의 독립성, 즉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분석한 권미진 · 홍수정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미니멀리즘적 성향이 높을수록 독립성도 높게 나타났다.<sup>2)</sup> 이를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소비자들이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광고로 나타나는 소비를 거부하고, 주체적 선택에 따른 소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의 논의에서 광고로 인한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소유욕’은 히스테리를 야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파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이 ‘비-소비’라는 욕구의 절단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드리야르가 우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 미니멀리즘적 소비 패턴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효율성 측면에서 미니멀리즘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선택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족족 기기를 교체하지 않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며, 빠르고 번잡한 삶의 양식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여유 있고 한적한 삶의 양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논리에서의 탈피만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환경 오염과 잉여 자원 및 자본의 남용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과시욕의 측면에서 미니멀리즘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베블런에 의하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적 과시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의복 문화’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효용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의복을 선택하며, 이에 의식적으로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과시적 소비를 지양하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만을 골라 소비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존 자본주의 논리에 근거한 소비 패턴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이 역시 효율성의 측면에서 발견되는 긍정적 영향을 유사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이 적극적인 대안은 기존의 소극적인 비-소비라는 해결 방안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 속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천에 대해 대중이 갖고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대중의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비-소비’에 대해 대중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신념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커지면, 그들은 단지 포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운동은 대중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광고를 보며 느끼는 욕망을 단적으로 제거하라는 요구는 대중에게 너무 거대한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개인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여 알맞은 소비를 권장하고, 그에 따른 구별 짓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독려하는 적극적 저항으로서의 미니멀리즘적 소비는 더욱 대중에게 실천하기 쉬운 행동으로 다가갈 것이다.

2) 권미진/홍수정, 「비우면 자유로워질까?: 미니멀리즘 추구가 소비자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34권, 2023, 12쪽.

3) Veblen, T., 『유한계급론』, 박홍규 옮김, 2024, 문예출판사, 177쪽.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Point 1.**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는 근대의 과잉 소비적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해당 칼럼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맥시멀리즘적 소비의 사례를 떠올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Point 2.** ‘미니멀리즘’이라는 하나의 방안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제도적인 방향이 아닌 문화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고안책입니다. 제도적 방법과 문화적 방법 각각이 갖는 장단점을 사유하고, 특정한 현대 사회문제에는 어떤 방법이 걸맞을지 생각해 봅시다.

## 참고문헌

권미진/홍수정, 「비우면 자유로워질까?: 미니멀리즘 추구가 소비자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34권, 2023, 67-87.

김종호, 「도덕적 사회주의의 환상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계약론과 자본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2022, 199-246.

Veblen, T., 『유한계급론』, 박홍규 옮김, 2024, 문예출판사.



## [사회과학 칼럼 2]

## 준-시민불복종으로서의 ‘신상 털기’

사법 정의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 관하여

세종우리누리 11기 멘토 철학과 장 동 휘

## 1. 사적제재의 일상화, 엄벌주의와 교정주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제재의 열풍이 불고 있다. 2020년에는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서울시 소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조차도 이러한 사적제재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sup>1)</sup> 문화적으로도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상호 극본의 『모범택시(2021, 2023)』 시리즈, 이창희 연출의 『살인자 난감(2024)』, 연상호 연출의 『지옥(2021, 2024)』 시리즈 등 최근까지도 사적제재를 소재로 삼은 미디어 매체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나 영화 외의 매체들에서도 사적제재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모범택시』나 『살인자 난감』, 『지옥』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물이고, 인기 웹툰이었던 박태준 만화회사의 『촉법소년』 역시 촉법소년을 이유로 처벌을 회피해 간 인물들에 대한 주인공의 사적제재를 소재로 삼고 있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현실을 모방하며 재구성하고,<sup>2)</sup> 동시에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욕망, 즉 소비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비를 촉진한다.<sup>3)</sup> 즉,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중매체가 끊임없이 사적제재를 소재로 서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적제재를 향한 국민의 욕망이 거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제재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예는 ‘정보 공개’, 즉 ‘신상 털기’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며 더욱 활발해졌으며, 실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현재 거주지 및 직장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생기는 등 모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사적제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 개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국가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sup>4)</sup>

사적제재가 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듯,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결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상 털기’도 이러한 맥락에 속하여 국민에게 옹호받는 사적제재 중 하나이다.<sup>5)</sup> 한편, 리얼리서치코리아가 2023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오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는 사적제재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고작 삼분의 일 수준에 그쳤다.<sup>6)</sup> 이렇듯, 국민들이 사적제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사법 판결이 사법 정의를 올바르게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1) 이채영/박성혁. 「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6권, 2021, 33쪽.

2) Baudrillard, J., *Simulacra And Simulation*, Glaser, S. F. Tran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151쪽.

3)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Nice, R.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230쪽.

4) 이채영/박성혁. 「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6권, 2021, 32쪽.

5) 뉴스1, “불법인 ‘사적 제재’에 그들은 왜 열광할까? … ‘신상 공개’ 그 후”, 2023, 6월 10일 자.

6) 뉴스1, “불법인 ‘사적 제재’에 그들은 왜 열광할까? … ‘신상 공개’ 그 후”, 2023, 6월 10일 자.

그러나, 이러한 사적제재는 분명히 위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여론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오해하여 생긴 경우가 빈번하다. 대한민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며, 따라서 엄벌주의보다는 교정주의를 택한다. 영미법의 엄벌주의와 대륙법의 교정주의 중 어느 한 쪽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신상 털기’의 목적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고 주장하는 여론의 주장은<sup>7)</sup>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엄벌주의는 무조건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점차 다양해지는 범죄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정해놓음으로써,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원인을 간과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학대나 살인과 같이 범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 범죄자는 형량을 면밀히 고려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2021년 ‘정인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아동의 안전을 위해 힘쓰던 전문가들은 오히려 엄벌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했다. 근본적 원인을 정치권에서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8)</sup> 이와 달리, ‘사기’나 ‘횡령’과 같이 범죄 행위 이후 얻을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엄벌주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큰 형량은 범죄의 이익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적극적으로 ‘신상 털기’가 이루어지는 범죄는 대다수 음주 운전, 강력 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들이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범죄들은 미적발에 대한 낙관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거나 사건 이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범죄이다. 즉, 엄벌주의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의 범죄인 것이다.

이러한 사적제재의 양상 중 하나인 ‘신상 털기’는 문화적으로 활발히 소비되고,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신상 털기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2. ‘신상 털기’의 구분

‘신상 털기’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① **보편적으로 윤리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신상 털기**이고, 다른 하나는 ② **보편적으로 윤리적 공감을 얻으며 이루어지는 신상 털기**이다. 이 둘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전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로 해결될 수 있지만, 후자는 법적 논의를 넘어 윤리적 차원에서의 논의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서이종·손준우가 연구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소속 회원들이 벌인 신상 털기 사건이다. 그들은 타블로(본명 이선웅) 씨의 학력에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결과적으로 타블로 측의 고소로 검찰에 기소된 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sup>9)</sup> 후자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튜버 ‘전투토끼’는 2024년 8월 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인 아내가 가해자들과 그 가족 등의 신상을 불법

7) 뉴스1, “불법인 ‘사적제재’에 그들은 왜 열광할까? ...‘신상 공개’ 그 후”, 2023, 6월 10일 자.

8) 임재성, 「더 많이 더 오래 감옥에 보내면 세상이 안전해질까」, 『월간참여사회』 제331호, 2023.

9) 서이종/손준우, 「“신상 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일상화된 정보 프로파일링과 공사의 경계변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2011 참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타블로 씨 본인의 명예만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블로 씨의 가족들에게까지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며, 타블로 씨의 부친은 이 사건의 스트레스가 큰 악영향을 끼쳐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유나, “타블로 측 “타블로父 지병사망, 타진요 스트레스 크게 작용”», 《조선일보》, 2012, 10월 15일 자 참고.

조회해서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했고, 이 둘은 같은 해 8월 1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었다.<sup>10)</sup>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양극화되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사법 질서의 붕괴를 우려했으며, 국민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현행 법령과 판결의 미온적인 태도와 가해자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것에 큰 분노를 표했다.<sup>11)</sup>

서이종·손준우의 연구는 신상 털기를 단순히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에 국한해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해 드러난 정보의 종류를 분석할 필요를 역설했다. 이는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되어 공개된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후자는 공익이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①의 신상 털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연구 말미에 신상 털기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하는 네티즌의 민주화운동이라 지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sup>13)</sup> ②의 신상 털기가 야기하는 사회적 논의를 간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②의 신상 털기는 오늘날에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사태이며, ①의 신상 털기와 달리, 극명한 여론의 양극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서이종·손준우의 연구에서 확장하여, ②의 신상 털기가 초래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 3. 시민불복종의 조건과 신상 털기

앞서 언급하였듯, 신상 털기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네티즌 수사대’로 지칭하고 시민 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시민불복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1) 공공적이고, 2) 비폭력적이며, 3) 양심에 따라 행해지지만 4)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한다. 공공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가치관에 의거하지 않음을 뜻한다. 한편, 비폭력적이라는 술어는 전투적 행위나 파괴를 의미하는데, 사회의 기본적 구조가 아주 정의롭지 못하거나, 사회 자체가 정의로웠던 초기 기본적 구조에서 아주 멀어졌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정당화될 수 있다. 양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법령과 행정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양심적 거부와는 달리,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는 문자 그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법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을 나타낸다.<sup>14)</sup> 오늘날 ②의 신상 털기를 모두 시민불복종으로 보는 것은 충족해야 할 조건들로 인해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상 털기의 폭력성과 비-양심적 행위 가능성이다.

우선 신상 털기는 폭력성을 가진다. 롤스는 비폭력성을 물리적 전투와 파괴 행위에 한정짓지만, 정보사회에 진입한 현대에서 폭력은 비물질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신상 털기에서

10) ‘전투토끼’는 명예훼손,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무원 아내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최상원,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유튜버-공무원’ 부부의 불법 합작품”, 《한겨레》, 2024, 8월 13일 자.

11) 이선영,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원 유출… 사적 제재 논란?”, 《MBC NEWS》, 2024, 6월 7일 자.

12) 서이종/손준우, “‘신상 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일상화된 정보 프로파일링과 공사의 경계변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2011, 9쪽.

13) 서이종/손준우, “‘신상 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일상화된 정보 프로파일링과 공사의 경계변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2011, 32쪽.

14) 홍성우, 『존 롤즈의 『정의론』 읽기』, 세창미디어, 2015, 120~126쪽.

개인의 정보를 편취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정보는 개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정보의 유출과 그 유출로 인해 항구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악용의 가능성은, 개인을 물리적 폭력보다 더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기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공권력을 지닌 국가 기구였던 것과 달리, 신상 털기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개인이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부정직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을 향한 집단의 비물질적 폭력 행사는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신상 털기는 그 목적이 경제 자본이나 사회 자본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양심적 행위 가능성을 지닌다. 시민불복종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 사이에 존중되어야 할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복종이다.<sup>15)</sup> 따라서, 불복종은 그러한 상황을 근거로, 그러한 상황의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전투토끼’의 사례에서 해당 유튜버가 후원을 명목으로 시청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sup>16)</sup> 시민불복종을 명목으로 하는 신상 털기가 실상은 금전적 이득의 편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다. 이는 시민불복종이 요구하는 ‘양심적 행위일 것’이라는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상 털기는 ‘비-양심적 행위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②의 신상 털기가 온전한 시민불복종이 아님을 시사한다. ‘비-양심적 행위 가능성’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거나 취한 금전적 이익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영역이지만, 특정 개인의 정보를 편취해 공개하는 ②의 ‘신상 털기’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그것이 가진 폭력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②의 신상 털기는 대다수 여론의 정의를 대변하고, 그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행위가 시사하는 바와 사법부에게 요구하는 바는 명확하며 그러한 요구가 사적 이득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②의 신상 털기는 시민불복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준하는 ‘준-시민불복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②의 신상 털기에서 어떤 함의를 읽어야 하며, 이는 현실 속 사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 4. 사법 정의와 준-시민불복종으로서의 신상 털기

신상 털기를 옹호하는 이들의 최우선 요구는 ‘수사기관의 적절한 피해자 보호’라는 후속조치이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정의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58.4%에 불과했으며, ‘범죄자는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설문에는 삼분의 일이나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sup>17)</sup> 즉,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여론은 범죄 후속 조치의 미흡함과 사법 불신, 미온한 처벌에 대한 불만이 결합되며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적제재의 열풍은 미국의 엄벌주의에 대한 동경을 기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미디어는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며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생산하는 편향된 보도 기조를 보이고,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빌미로

15) 홍성우, 『존 롤즈의 『정의론』 읽기』, 세창미디어, 2015, 120쪽.

16) 최상원,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유튜버-공무원’ 부부의 불법 합작품”, 《한겨레》, 2024, 8월 13일 자.

17) 이윤희,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4.

‘형벌 포퓰리즘’적 사법 정책을 펼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공권력을 가진 집단의 태도는 앞서 언급한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여론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진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 어렵다.

이러한 불만의 궁극적 해결은 사법 불신의 해소이다. 이는 각종 범죄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미온하다고 느껴지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그러한 처벌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사법 기관은 ‘스토킹 범죄’, ‘몰카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신종 강력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sup>19)</sup> 또한, 신상 털기의 가장 본래적 원인인 범죄자 신상 보호의 단계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는 형벌 포퓰리즘적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재고하고, 피해자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②의 신상 털기는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준-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있으며, 지양되어야 하는 범법 행위이지만,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은 이를 묵시해선 안 될 것이다.



18) 임재성, 「더 많이 더 오래 감옥에 보내면 세상이 안전해질까」, 『월간참여사회』 제331호, 2023; 추지현,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형사정책연구》 제28권, 2017 참조.

19) 최보금, 「디지털 사적 제재, 이대로 좋은가」, 《KISO저널》 제56호, 2024.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 Ponit 1.** 윗글은 신상 털기를 롤스의 시민불복종 개념을 통해 해석합니다. 오늘날 대두되는 사회적 현상 중 이처럼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Point 2.** 신상 털기는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과 민법의 원리를 떠올리며, 왜 정보의 종류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회 문제가 있는지 고려해 봅시다.
- Point 3.** 엄벌주의는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의 원리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칸트나 베카리아, 공리주의자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까닭을 상기하며,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 참고문헌

- Baudrillard, J., *Simulacra And Simulation*, Glaser, S. F. Tran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3.
-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Nice, R.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뉴스1, “불법인 ‘사적 제재’에 그들은 왜 열광할까? ... ‘신상공개’ 그후”, 2023, 6월 10일 자.
- 서이중/손준우, “신상 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일상화된 정보 프로파일링과 공사의 경계변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2011, 49~87쪽.
- 이선영,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원 유출... 사적 제재 논란?”, 《MBC NEWS》, 2024, 6월 7일 자.
- 이유봉, 『2023년 국민법익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4.
- 이채영/박성혁, “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6권, 2021, 115~154쪽.
- 임재성, “더 많이 더 오래 감옥에 보내면 세상이 안전해질까”, 『월간참여사회』 제331호, 2023.
- 정유나, “타블로 측 “타블로 父 지병사망, 타진요 스트레스 크게 작용””, 《조선일보》, 2012, 10월 15일 자.
- 최보금, “디지털 사적제재, 이대로 좋은가”, 《KISO저널》 제56호, 2024.
- 최상원,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유튜버-공무원’ 부부의 불법 합작품”, 《한겨레》, 2024, 8월 13일 자.
- 추지현,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형사정책연구》 제28권, 2017, 155~179쪽.
- 홍성우, 『존 롤즈의 『정의론』 읽기』, 세창미디어, 2015.

## 서울역 ‘노숙인’을 둘러싼 두 가지 아이러니에 관하여

세종우리누리 1기 멘토 철학과 장 동 휘



[사진] 서울역 앞 전경, 2025/07/12.

서울역 앞에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 국가의 수도라는 위엄에 걸맞은 고층 빌딩들과 분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몸에 늘어붙은 값비싼 핸드폰, 귀에 꽂혀 있는 헤드폰 혹은 유무선 이어폰, 스마트 워치나 고가의 아날로그 시계들이 보인다. 또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승용차들, 심심치 않게 보이는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서울역은 자본주의의 집합체에 ‘준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공간이 자본주의의 집합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그런 물질적 요소들 자체라기보다는, 그것들 이전에 먼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아이러니함’이다. 이 아이러니는 경제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종교적이기도 하다. 위 사진은 두 가지 대비를 통해 그 아이러니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두 가지 대비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지적한다. 바로, 사진 우측 하단에 위치한 노숙인 남성이다. 해당 남성은 7월의 무더움을 피해 입간판이 만들어준 작은 그늘에 앉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햇빛은 가려줄지 모르나, 기온 자체를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그와 대비되어 보이는 것은 두 명의 열성적인 종교인이다. 사진 우측에는 보면대를 세워놓고 핀 마이크를 통해 설교하는 남성이 있고, 좌측 흡연장 앞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입간판을 놓고 찬송가를 부르는 노인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아이러니함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신약에서

예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율법을 가르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38)”는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율법은 “네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 22:40)”이라고 가르치며,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율법을 강조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소외된 자들을 챙기며, 제자들과 다른 교인들에게 이웃 사랑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그가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한 것(마 28:19~20)은, 앞서 강조한 두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의 외적 종교활동 중 가장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진 속 두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동하고 있는가? 첫 번째 율법에 관해선 명확하게 답할 수 없지만, 그들은 두 번째 율법을 잊은 것만 같다. 외면받고 소외된 이들, 즉 현대 자본주의의 공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도덕적인 인간임을 자처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기준점이다.

한편, 우리는 어쩌면 이전 관점을 포괄하는 거대한 대비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노숙인과 그 외 모든 개인 간의 대비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노숙인이 “왜, 굳이 저곳에 앉아 있는가?”를 묻는다면, 대부분 그가 더위를 피해 그늘에 앉기 위해 그곳을 골랐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타당한 추론이다. 그러나 이 답변에는 ‘노숙인’라는 호명에 의한 어떤 규율이 이미 내재해 있다. 우리는 보통 여름에 길게 야외에 머물지 않는다. 카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변에 ‘관공서’가 있다면 기꺼이 안으로 들어가 쉰다. 서울역은 관공서는 아니지만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공서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 역시 안 될 것 없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사진에 보이지 않는 좌측으로 걸어가면 서울역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더 걸어가면 할리스,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다. 노숙인이 아닌 개인들은 보통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덥고 괴로우므로, 자유롭게 해당 공간으로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외적으로 선택과 입장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지만, 내재적으로는 그사이 하나의 단계가 더 존재한다. 그것은 해당 공간을 지배하는 ‘공권력’에 의한 승인 절차이다.

공권력은 본래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Oxford Languages)을 뜻한다. 그리고 이 명령과 강제의 바탕에는 해당 장치들이 더 우월한 의사 표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공권력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에 속한 개인에게 특정한 명령을 강제하는 모든 권력을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적’일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위해 우리는 그것을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한다. 예컨대, ‘드레스 코드’ 문화가 대표적이다. 드레스 코드는 특정 공간에 입장하기 위한 임의의 의복 규정을 의미한다. 고급 식당에 운동복을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되고, 예배 등 종교 의례에 참석할 때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등의 관습이 드레스 코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공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해당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인은 불평 없이 이를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공공’적인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사진 속 노숙인은 이중적 배제 절차에 놓여 있다. 일차적으로 ‘노숙인’라는 호명에 뒤따르는 부가적인 이미지들—불결함, 불성실함, 무지함, 가난함, 어울려선 안 되는 존재들—로 인한 문화적 시선에 의한 배제 절차가 작동한다. 서울역 다가서기 종합지원센터의 이수범 실장은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하며 노숙인이 식당

주변에만 가도 내쫓고, 경찰을 부르기 바빠졌음을 지적한다.<sup>1)</sup> 이러한 전문가의 증언은 노숙인을 향한 혐오가 가득 담긴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으로서 소비할 가능성이 (희박하게) 있는 노숙인을 수용하는 것과 소비하려 입장한 개인을 비교했을 때, 후자를 위해 전자를 배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이상한 선택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노숙인들에게 작동하는 문화적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보통 노숙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민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인데, 이는 곧 공권력의 호출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이수범 실장의 인터뷰에서도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호출하는 상황이 비밀비재하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는 그다음 배제 절차로의 이행을 암시하는 표지가 된다.

노숙인들은 이차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승인 절차에서 배제되어 ‘거기에 있음’을 강제 받는 존재가 된다.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의 일반적인 존재 의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고려했을 때, 기업이 행사하는 공(적인 것 같은)권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명백히 국민이고,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두 공권력의 주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처럼 노숙인과 그 외 모든 인물의 대비는 이중적 배제 절차라는 장치를 통해, 같은 국민이자 소비자인 노숙인만이 사진 속 정해진 장소에만 머물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드러낸다.

‘노숙인’이라는 어휘의 한자 풀이는 ‘이슬이 맺히는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집’이라는 안정적인 거주지에는 이슬이 맺힐 수 없으므로, 이 단어는 ‘homeless’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숙인이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그 호명 안에 내재한 여러 부정적 이데올로기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집 없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만 위치하도록 강제되는 존재이자 특정 공간 외의 공간에 입장하길 거부당하는 존재이다. 거주지는 분명 중요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 중요한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공간들마저도 잃어버렸다.

‘생존’이나 ‘영위’는 인간다운 삶을 함축하지 못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사치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우리는 관심 어린 시선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Ponit 1.**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숙자’의 법률상 올바른 표현은 ‘노숙인’입니다. 왜 이러한 용어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Point 2.** 노숙인은 같은 국민이지만, 많은 국민에게 이방인처럼 대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고찰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1) 이해리, “[인터뷰] “노숙은 상황이지, 신분이 아니다””, 《뉴스포스트》, 2019, 11월 12일 자.

## 알고 보면 쓸모있을 청소년 법률 상식(알쓸청법)

세종우리누리 1기 멘토 사학과 정 중 연

###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은 항상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크게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적 피해 관련 법과 경제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계약 관련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권리 보호의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사회에 발을 딛는 시기에도 도움이 되기에 성인으로 넘어가기 전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을 통한 보호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청소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 상식]

### ◆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폭력은 물리적으로 행하는 상해, 폭행뿐만 아니라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나 정신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넘어서 언어나 온라인상에서 괴롭히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 ◆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는 학교의 선생님에게 직접 알리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 배정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어요. 모든 방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개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학폭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고 볼 수 있어요.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이를 위한 요양 등을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학폭위의 조치 외에 구제 절차가 있나요?

우선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해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이 소속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기한은 학폭위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의 결과를 불복할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를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 피해 구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되는 기본적인 신고 창구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교육청이 연계해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법률, 의료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안내합니다.(전화 117, 문자 #0117,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및 상담 가능)

##### ● Wee 센터(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학교 상담실(Wee클래스)을 통해 연계하거나 직접 문의가 가능해요.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각 지역에 있으며, 학교폭력 외에도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시 긴급구조나 보호 시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전화: 1388)

#####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지원해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경우 해당 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화: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 ◆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악성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기에 증거(캡처 자료 등)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타인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사회적인 평가를 실추시켰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모욕의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욕설이나 추상적 표현으로 인격을 무시할 때 성립하는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캡처 자료나 관련 게시물 등)를 확보한 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화: 1377)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 주소 등)가 온라인 공간에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사진을 올리기 전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제 얼굴로 익명의 누군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 유통, 소비, 시청 모두 처벌받으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영상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정식으로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합니다.(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수리에 대해 언제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판매한 업체가 7일 이내에 환불하고자 하는데 거부하거나 하자 상품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 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속하기에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몰래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샀는데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이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그렇기에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허락한 용돈 범위 내에서 물건을 샀거나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여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 계약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막아주는 권리이기에 이를 악용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장실습생 역시 산재보험법상 명백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 법률 상식10번과 1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실습 기간에 관계 없이 실습생을 1명이라도 받은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을 누락했다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성이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현장실습생을 위한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해 두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금액이나 보상액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학교와 교육청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학교 전담 노무사가 계시기에, 전담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지원(검정고시, 대입, 복교 등), 사회 진입 및 자립 지원(진로 탐색,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자립지원수당 등), 정서 및 건강 지원(무료 건강검진, 상담, 급식 및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꿈드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화: 1388)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언제나 전화, 문자,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긴급구조창구이며 위에서 소개한 꿈드림센터 연계뿐만 아니라 청소년 쉼터 연계,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하기 전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 아르바이트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 13세 미만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 ◆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청소년들의 경우 우선 부모님(또는 후견인)과 같이 서류상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나이와 친권자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 17조) 참고로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 근로계약서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여러분과 사장님(사업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반드시 써야 해요. 반드시 복사본이나 원본 한 부를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할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현저히 적어지기에 근무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아요.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연차유급휴가(1주일에 며칠을 쉬는지, 주휴일 명시)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또한 근로 계약 가운데 근로 시간이나 부당 해고 등과 같은 조항들은 수정 요구나 거부할 수 있어요.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이 글 마지막에 첨부했습니다.

#### ◆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나요?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로 합의할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또한, 청소년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되어 있는데 18세 미만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청소년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 ◆ 청소년과 성인의 임금은 다르게 지급되나요?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025년 기준 10,030원)

#### ◆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약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 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 제가 잘못해서 월급에서 돈이 깎일 수도 있나요?

임금은 반드시 현금(통장 이체 포함)으로, 전액 아르바이트를 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지각비, 물품 파손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돈을 깎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청소년의 신체, 정신 건강을 해칠 유해 및 위험 직종의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보호법 제29조) 기타 고용금지업소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시 가능하며 깎더라도 3개월 이내,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깎일 수 없어요.

#### ◆ 아르바이트 도중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경우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위험한 작업을 시키거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또한 일을 하는 도중에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르바이트 중 문제가 생겼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폭언, 성희롱 등의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해당 센터는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검색

→ 홈페이지: <https://www.youthlabor.co.kr>

###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동 문제 상담 창구로 전화 상담(1350) 또는 온라인 신고(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 체불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제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상담: 132)

### ◆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없지만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의 일시와 내용,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의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어떤 고용 형태라도 모든 근로자는 해당 보험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에 아르바이트 근로 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아르바이트할 때 4대 보험은 무슨 관련이 있나요?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산재보험의 경우 1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며 치료비와 치료 기간 중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은 실직 후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해 가입해야 해요.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는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보험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 아르바이트생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하려는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평소에 받던 월급 정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 및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 해고를 겪었을 경우 부당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받아야 할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서로 합의할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그의 저서인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한 번쯤 들어봤을 이 격언은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에 속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관통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상식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 자신의 권리 위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사회과학 칼럼 5]

## 우리가 웃는 그 순간, 누군가는 왜곡된다

미디어의 ‘부캐’ 속 이주민 재현에 대하여

세종우리누리 15기 멘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김 지 우

## 1. ‘부캐’란 무엇인가

최근 대한민국 미디어에서는 이른바 ‘부캐 열풍’이 불고 있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줄임말로, 방송이나 미디어 등에서 실존 인물이 본래의 정체성과는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방송국 MBC의 토요 예능 프로그램《놀면 뭐하니?(2019~)》에서는 출연자 유재석 씨가 ‘유산술’이라는 트로트 가수 캐릭터로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sup>1)</sup> 이처럼 유재석 씨는 본래의 이미지(본캐)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설정을 가진 다양한 ‘부캐’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와 웃음을 자아냈다. 이 외에도 래퍼 ‘지미 유’, 혼성그룹 ‘씩쓰리’의 ‘유두래곤’ 등, 부캐는 단순한 캐릭터 설정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 브랜드처럼 소비되며 대중문화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캐’의 유행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드러내는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부캐’가 이주민의 말투, 외모, 옷차림 등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한다면, 그 웃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 2. 미디어 속 이주민 재현 ‘부캐’ 분석하기

최근 미디어에서 유행한 이주민 ‘부캐’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튜브 콘텐츠 《나몰라 패밀리 - 핫쇼》의 일본 국적 캐릭터 ‘다나카’<sup>2)</sup>와, 유튜브《폭씨네》및 KBS《개그콘서트(1999~)》의 ‘니통의 인간극장’에 등장하는 필리핀 국적 캐릭터 ‘니통’<sup>3)</sup>을 들 수 있다.

이 두 캐릭터는 각각 유튜브 조회수 637만 회, 1,028만 회를 기록할 만큼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콘텐츠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실제 방송인과 다른 국적의 캐릭터로 ‘부캐’를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캐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두 부캐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먼저, 유튜브 콘텐츠 《나몰라 패밀리 - 핫쇼》의 ‘다나카’는 1994년생, 32세 일본인 호스트 캐릭터이다. 그는 한국에 건너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고자 하지만, 악덕 고용주에게 사기를 당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설정을 지닌다. 다나카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한국에 위치한 호스트 바지만, 프로그램을 모르고 시청할 경우 단순한 스튜디오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나카’ 캐릭터에서 드러나는 이주민 재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음이 어눌하다. 예를 들어 ‘꽃가루’를 ‘꼬초가루’라고 발음하는 등, 종성을 명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특히 이 어눌한 발음이 성적인 단어 혹은 비속어로 연결되었을 때 이를 유머 코드로 소비하고 있다.

둘째, 유행이 지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이다. 현재 일본이나 한국의 패션 트렌드와는 동떨어진 외양으로 캐릭터를 설정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청자에게 어색함 혹은 우스꽝스러움을 유도한다.

1) MBC,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소개」, MBC, n.d.,

<https://m.imbc.com/program/1004711100000100000>.

2) 나몰라패밀리 - 핫쇼, 「신입 호스트 면접!」, YouTube, 2022.10.17, <https://youtu.be/KkaRSZNlcEY>.

3) KBS, 「〈개그콘서트〉 프로그램 소개」, KBS, n.d.,

<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pc/index.html>.

셋째,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설정이다. ‘다나카’는 호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명’과 같은 유흥업계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지명’ 대신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보다 순화된 언어로 대체하기도 한다.

넷째, 한국에 과도하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안중근 등 항일 운동가를 두려워하는 설정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뒤집는 조롱적 요소가 삽입된다. 이러한 장면은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본인 전체의 역사 인식과는 무관한 설정이며, 항일 인물을 단순히 ‘일본인을 해한 인물’로 축소시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를 과장되게 낯설어하는 모습도 반복된다. ‘다나카’는 명동, 홍대 등 유명한 관광지를 자주 다니며 한국에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마약김밥을 실제 마약으로 오해하거나, 곰국에 진짜 곰이 들어간다고 믿는 등의 설정을 통해 이해 부족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도한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콘텐츠는 유튜브 《꼭씨네》와 KBS 《개그콘서트(1999~)》의 코너 ‘니통의 인간극장’이다. 이 콘텐츠에 등장하는 ‘니통’은 33세 필리핀 국적의 이주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시댁에서 생활하는 며느리 캐릭터다. 그는 한국 비자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자신보다 약 10살 많은 ‘박주백’(설정상 남편)과 결혼한 인물로 설정된다. ‘니통’은 다른 한국인 며느리들과 달리 시댁살이에 성실히 임하지만, 오히려 시댁으로부터 꾸준히 구박을 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캐릭터의 주요 웃음 요소는 고부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된다.

‘니통’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주민 재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숙한 한국어 사용이다. ‘니통’은 남편을 ‘남표니’, 사람을 ‘살람’ 등으로 발음하며, 전반적으로 어눌한 한국어 실력을 갖춘 인물로 묘사된다. 실제 방송인의 말투와 달리, ‘니통’이라는 부캐를 연기할 때는 한 문장 안에서조차 억양 변화와 부정확한 어휘 사용이 나타난다. 이는 종종 유머 코드로 소비되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니통’에게 “채수 없다”고 말하자 ‘니통’이 그 뜻을 묻고, 시어머니는 이를 얼버무리며 “좋은 뜻”이라고 둘러댄다. 이러한 장면은 이주민의 언어적 한계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유도한다.

둘째는 전형적인 시집살이 서사다. ‘니통’은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로서 제사나 집안 행사 준비 등의 집안일을 당연한 의무처럼 떠맡는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은 뒤에서 “저걸 다 하네, 바보”라며 조롱하고, 남편은 “밥이나 차려와”와 같은 명령조의 대사를 반복한다. 시어머니 역시 “우리 아들 돈 벌아먹는다”, “다른 며느리들은 몸으로 안 때우고 돈을 더 많이 보낸다”, “여자를 잘 데려와야 한다” 등의 여성 혐오적이고 계급화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대사들은 웃음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니통’은 경제적 자립권이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고향에 가기 위해 시부모에게 비행기 값을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스스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콘텐츠 속 ‘니통’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특히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고분고분하게 수긍한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하늘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속마음을 외치면,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갈등이 마무리되고 개그가 완성된다. 또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니통’에게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그녀를 철저히 종속적 존재로 규정한다.

### 3. 실제 이주민들의 모습과의 차이점

실제 이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미디어 사례로 K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이웃집 찰스》(2015)와 본 칼럼에서 분석한 두 ‘부캐’ 캐릭터를 비교해 보겠다. 《이웃집 찰스》는 취업,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현실적인 삶과 갈등을 다루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데 주력하는 프로그램이다.<sup>4)</sup> 여기서는 24~26회에 등장한 일본인 이주민 ‘하루나’와 ‘다나카’, 215회에 등장한 베트남 이주민 ‘탄웬’과 ‘니통’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발음 측면을 살펴보자. ‘다나카’는 “김풍”을 ‘기무풍고’, “꽃가루”를 ‘꼬츠가루’ 등으로 발음하며 어눌한 말투를 강조한다. 이는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반면, 《이웃집 찰스》의 ‘하루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등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며,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의 발음을 조롱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니통’ 역시 ‘사람’을 ‘살람’이라고 발음하며 언어적 미숙함이 강조되지만, ‘탄웬’은 발음이 다소 서툴 수는 있어도 이를 희화화하지 않고 진지하게 전달된다. 이처럼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발음을 조롱의 소재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음으로 재현 이미지를 살펴보자. 박연진·이장근(2023)의 《이주민 재현 프로그램 출연자의 특성과 갈등 요소 구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캐릭터는 성실형, 적응형, 본보기형, 갈등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5)</sup> ‘성실형’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인물이며, ‘적응형’은 한국 사회에 무난히 정착해 살아가는 인물, ‘본보기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 ‘갈등형’은 문화·언어·가정 등의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다.

이 기준에 따라 본 칼럼의 인물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나카’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성실형’에 해당한다. 그는 소속사의 거짓말에 속아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등 어려움을 겪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며 자립을 시도한다. 그러나 어리숙하고 수동적인 설정은 이주민 재현의 한계를 드러낸다.

‘하루나’는 ‘적응형’과 ‘본보기형’의 특성을 모두 보인다. 한국인 남편과 자녀와의 조화로운 가정생활, 그리고 제주 해녀학교에 다니며 실제 해녀들과 교류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는 그녀의 주체적인 삶을 잘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에서 이주민을 단순한 타자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그리지 않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니통’은 전형적인 ‘갈등형’으로, 시부모의 경제적 통제, 고부 갈등,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부각된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 값을 요청하거나, 시어머니의 폭언에 묵묵히 수긍하는 모습은 수동적이고 무력한 이주민 여성의 이미지를 반복한다. 반면 ‘탄웬’은 ‘본보기형’에 해당한다. 그는 자영업자로서 꽃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고, 한국인 남편이나 양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예능과 교양이라는 장르적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부캐’라는 설정을 이유로 이주민의 특성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재현 방식이 단지 ‘예능이니깐’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도 되는지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왜곡하거나 고정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4. 이러한 이주민 재현이 갖는 문제점

실제 이주민은 국적, 문화, 성격, 직업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캐’ 형식으로 등장하는 이주민 캐릭터는 대부분 어눌한 발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이들 콘텐츠에서는 자막이나 연출을 통해 발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언어적 미숙함과 행동의 어색함을 주요 웃음 포인트로 삼는다. 특히 본 칼럼에서

4) KBS,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소개」, KBS, n.d.,

<https://program.kbs.co.kr/1tv/enter/charles/pc/index.html>.

5) 박연진/이장근, 「이주민 재현 프로그램 출연자의 특성과 갈등 요소 구성에 관한 연구: 〈이웃집 찰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2023, p. 174.

분석한 두 명의 부캐는 모두 수동적이고 어리숙한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된다.

이러한 미디어 재현의 가장 큰 문제는 허구의 캐릭터가 실제 이주민의 ‘대표성’을 대신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이주민이 아닌, 해당 집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이 만든 허구적 설정과 과장된 특성은 오히려 현실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킨다. 결국 이러한 재현 방식은 이주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그들을 ‘동정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소비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미디어 속 이주민 캐릭터는 대표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는 실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한국어를 못하는 존재’, ‘언제나 가난하고 의존적인 존재’, ‘항상 순응하고 복종적인 존재’로만 이주민을 재현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 결국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현 방식은 사회 전반의 이주민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 앞으로의 ‘재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디어 속 재현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주민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는 허구적 재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최근 TVN 드라마《눈물의 여왕(2024)》에서 기존의 ‘재벌 남자 주인공과 신데렐라 여성’이라는 클리셰적 성 역할을 전환하고자 시도한 것처럼, 이주민에 대한 재현 역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고정관념을 직면하고, 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민을 ‘다나카’나 ‘니통’처럼 과장된 ‘부캐’의 틀 안에 가두는 대신,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존재를 보다 정확하고 다층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개개인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이주민 배우나 방송인의 등장 빈도를 높여, 당사자의 경험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실감 나는 이주민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는 기존에 제시된 이주민 재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발음이나 외모 등을 희화화하는 방식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정한 말투나 억양을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연출은 단순한 웃음의 코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부캐’ 자체의 재현 대상에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등장하는 많은 ‘부캐’들은 사회적 약자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예능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이유로, 이들은 약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부캐의 성립과 유행에는 수용자의 역할 또한 결정적이다. 시청자들이 부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부캐를 받아들이는 때, 해당 캐릭터는 예능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갖게 된다.<sup>6)</sup>

그렇기에 웃음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을 묵인할 필요는 없다. 제작자뿐 아니라 수용자 역시 ‘부캐’가 담고 있는 왜곡된 재현 방식에 비판적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다층적인 캐릭터 재현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박혜인 외, 「MBC 〈놀면 뭐하니?〉에 나타난 부캐와 세계관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3권, 제3호, 2022, p. 5.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 Point 1.** 윗글은 이주민을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화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등의 개념의 측면에서 미디어가 이주민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해 봅시다.
- Point 2.**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상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넘는 것이 언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혐오’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Point 3.** 미디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다른 예시를 생각해 보고, 이를 ‘낙인 이론’의 개념에서 설명해 보세요.

## 참고문헌

- KBS, 「〈개그콘서트〉 프로그램 소개」, KBS, n.d.,  
<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pc/index.html>.
- KBS,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소개」, KBS, n.d.,  
<https://program.kbs.co.kr/1tv/enter/charles/pc/index.html>.
- MBC,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소개」, MBC, n.d.,  
<https://m.imbc.com/program/1004711100000100000>.
- tvN, 「〈눈물의 여왕〉 프로그램 소개」, tvN, n.d., <https://tvn.cjenm.com/ko/queenoftears/>
- 나몰라 패밀리 - 핫쇼, 「NamollaFamily - Hotshow」, YouTube 채널, n.d., <https://www.youtube.com/@NamollaFamily-Hotshow>.
- 나몰라 패밀리 - 핫쇼, 「꽃가루 아니고 고추가루 날리는 일본인 [Shorts]」, YouTube, 2022.07.13.,  
<https://youtube.com/shorts/dtk4b1zuFqg>.
- 나몰라 패밀리 - 핫쇼, 「신입 호스트 면접!」, YouTube, 2022.10.17. <https://youtu.be/KkaRSZNlcEY>.
- 동네친구 강나미, 「다나카, 드디어 강나미가 지명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EP.3」, YouTube, 2022.12.22, <https://youtu.be/3Fi766ctu8Y>.
- 박연진/이장근, 「이주민 재현 프로그램 출연자의 특성과 갈등 요소 구성에 관한 연구: 〈이웃집 찰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2023.
- 박혜인 외, 「MBC 〈놀면 뭐하니?〉에 나타난 부캐와 세계관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3권 제3호, 2022.
- 폭씨네, 「Pokssine」, YouTube 채널, n.d.,  
<https://www.youtube.com/channel/UCVsBCfwb1NPjuolMRDtDjHg>.
- 폭씨네, 「[다문화 고부열정] EP-5 명절에 시댁 음식을 친정에 와서 사가는 시누이!!」, YouTube, 2023.01.20, <https://youtu.be/3nbVA1lBwZs>.
- 폭씨네, 「[시골트콤] EP-6 나이 많은 동서 때문에 괴로운 외국인 며느리」, YouTube, 2023.01.06,  
<https://youtu.be/zmfU3KlmdAo>.

[과학 칼럼 1]

# 유전자와 맞춤형 의학

나만을 위한 치료의 시대

세종우리누리 12기 멘토 생명정보융합학과 윤 지 은

## 1. 의학 패러다임의 전환

20세기 의학은 '평균'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의학 연구에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치료법을 확립할 때 연구자들은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적 평균을 내고 그 결과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했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지만 실제 병원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마다 병의 진행 속도, 약물 반응,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처방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개인차를 보고 의사들은 생활습관, 식습관, 환경, 나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이러한 개인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 정보'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가 질병 발생 위험도와 약물 대사 방식,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학의 관점이 "환자들의 평균"에서 "환자 개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맞춤형 의학(Precision Medicine)"이라 부른다. 맞춤형 의학의 핵심은 유전체(Genome) 분석 기술이다. DNA를 읽고, 해석하고, 그 정보를 실제 치료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의학은 훨씬 개인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 2. 유전학의 발전

### • DNA 구조의 발견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 데이터를 토대로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을 밝혀냈다. 이 발견은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DNA는 A, T, G, C 네 가지 염기서열로 구성되고 이 염기서열의 순서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한다.

### •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2003년 인류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완성했다. 13년 동안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인간이 가진 약 2만여 개 유전자의 전체 지도(genome map)를 그린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의학, 생물학, 약학 등 많은 분야의 기초 자료가 되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다. 분석 비용은 3조 원이 넘었고 한 명의 게놈을 해독하는 데 10년 가까이 걸렸다.

###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의 등장

2000년대 후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등장했다. NGS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DNA를 읽을 수 있었다. 현재는 하루에 한 명의 게놈을 10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해독할 수 있으며 분석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NGS는 맞춤형 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발판이다.

### 3. 맞춤형 의학의 핵심: '개인 게놈 정보'

유전체 분석이 어떻게 개인별 치료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유전자의 변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 ●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와 질병 감수성

사람의 유전체는 99.9%가 동일하지만 나머지 0.1%가 개인차를 만든다. 그중 가장 흔한 변이가 SNP이다. 한 사람의 DNA 서열이 'AAGC'인데 다른 사람은 'ACGC'라면, 한 염기(A→C)의 차이가 SNP이다. 이 작은 차이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 ● 약물 유전학(Pharmacogenomics)

맞춤형 의학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분야는 약물 유전학이다. 개인의 유전형에 따라 약물 대사 속도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최적의 약물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예시로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들 수 있는데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억제해 혈전 생성을 막아주지만 용량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너무 많으면 치명적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와파린 대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투여량을 결정할 수 있다.

### 4. 실제 임상 적용 사례

#### ● 항암제 표적치료

전통적인 항암치료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을 가진다. 하지만 암세포의 유전적 변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변이된 단백질을 겨냥하는 표적치료제를 설계할 수 있다.

- HER2 : HER2 단백질이 과발현된 유방암 환자에게는 트라스투주맙(허셉틴)이 효과적이다. HER2가 정상인 환자에게는 이 약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치료 전 유전자 검사가 필수이다.
- EGFR: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 변이가 있는 경우 게피티닙이나 오시머티닙 같은 표적치료제가 높은 반응률을 보인다.
- ALK: ALK 재배열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게는 알렉티닙, 크리조티닙 등이 사용된다.

이처럼 “유전자 변이 파악 → 표적치료제 투여”의 흐름은 현대 암치료의 핵심이다.

#### ● CAR-T 세포 치료

CAR-T 세포 치료는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 특이적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T세포에 삽입 및 증식시킨다. 증식시킨 T세포를 다시 환자의 체내로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하게 한다. 이 치료법은 일부 혈액암에서 암 치료 후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등 높은 치료 효과 사례가 있다.

### 5. 유전체 기반 예방의학

맞춤형 의학은 치료를 넘어 예방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 **질병 예측 모델과 조기 진단**

대규모 인구 집단의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질병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폴리제닉 위험 점수(Polygenic Risk Score)"를 산출하면 특정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이·운동·약물 예방 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

DTC 유전자 검사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서비스이다. 침 한 방울로 카페인 대사 능력, 근육 발달 유형, 탈모 가능성, 비타민 흡수 효율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 다만, 임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항목도 많고 잘못된 해석이 불필요한 불안이나 잘못된 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6. 기술적 기반과 빅데이터

● **유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

1. 샘플 채취: 혈액, 타액, 조직 등에서 DNA 추출
2. 시퀀싱: NGS 장비를 통해 염기서열 읽기
3. 매핑: 읽은 서열을 기준 게놈에 정렬
4. 변이 탐지: SNP, 인델, 구조 변이 등 찾기
5. 해석: 변이가 단백질 기능질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 예측
6. 임상 적용: 치료법·예방책 결정

● **오믹스(Omics) 데이터 통합 분석**

유전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질체(Proteome), 대사체(Metabolome) 데이터를 통합해 질병 상태를 다각도로 파악한다. 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량, 단백질 변형 상태, 대사산물 패턴을 함께 분석하면 치료 반응 예측이 훨씬 정확해진다.

● **AI와 머신러닝의 역할**

인간의 눈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초대형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데 AI가 필수적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변이-질병 연관성 예측,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치료 반응 예측 모델 개발 등에 활용된다. 구글 딥마인드의 AlphaFold는 단백질 구조 예측의 난제를 해결하며 신약 개발 속도를 크게 높였다.

## 7. 윤리와 사회적 쟁점

●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유전체 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유전자에는 단순한 신상뿐 아니라, 질병 위험, 가족관계, 미래 건강 상태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은 고도화된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유전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 ● 데이터 공유와 공공 이익

맞춤형 의학의 성장은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 축적과 공유에 달려 있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데이터는 공유해야 발전한다'는 과학계의 원칙과 '개인의 동의와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8. 미래 전망

### ● 나노기술과 유전체 편집의 결합

CRISPR-Cas9 같은 유전체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를 직접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여기에 나노기술을 접목하면, 유전물질을 원하는 세포에만 정확히 전달하는 '정밀 타겟팅'이 가능해질 것이다.

### ● 글로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단위 또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UK Biobank', 미국의 'All of Us'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수백만 명의 유전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면 드문 질환부터 흔한 생활습관병까지 예측·예방이 한층 정교해질 것이다.

### ● 예측·예방 중심의 의료로 진화

현재 의료는 질병이 발병한 뒤 치료하는 반응형 모델이 주도인 방법이다. 그러나 맞춤형 의학과 AI가 결합하면 발병 전 위험군을 찾아내고 개인별 맞춤 예방 전략을 설계하는 '예측·예방형' 모델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 9. 맺으며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설명서이다. 맞춤형 의학은 그 설명서를 읽는 기술로 나아가 수정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와 NGS의 발전,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의료는 더 이상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각 개인의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와 예방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교과서랑 엮어서 생각하기

- Point 1.**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왜 SNP가 질병 발생이나 약물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Point 2.**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개념을 기반으로 표적치료제가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만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치료법이라는 점을 설명해 봅시다.
- Point 3.**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유전정보 활용의 장점과 윤리적인 문제점을 각각 생각해 봅시다.

[간호 칼럼 1]

# 간호사,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

세종우리누리 15기 멘토 간호학과 차 지 안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에서 주사를 놓고 약을 주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환자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이자 보호자, 상담자, 교육자, 그리고 조력자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재난 현장, 연구소까지 넓게 퍼져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 1.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지키는 전문가

간호사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돌보는 사람이다.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처를 살피고, 통증을 조절해 주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또한 간호사는 체온, 맥박, 혈압과 같은 생체 징후를 측정하고 기록하며,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도 빠르게 발견한다.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도, 간호사는 미묘한 변화들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읽어낸다. 이러한 민감한 관찰과 즉각적인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 2. 보호자와 환자의 마음을 보듬는 상담자

병원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고 두려운 장소이다. 간호사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들, 예를 들어 불안, 슬픔, 분노 등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다. 환자에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주고, 보호자에게는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전달하며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암 병동처럼 긴장감이 큰 곳에서는 간호사의 공감 능력과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 정신건강 간호사처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전문 간호사도 있다. 이들은 단지 약을 챙겨주는 것을 넘어서,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치료를 함께 이끌어간다.

## 3. 건강을 가르치고 예방하는 교육자

간호사는 병이 생긴 뒤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이다. 예를 들어 학교 보건실의 보건교사는 대부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다. 학생들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며, 성교육, 위생 교육 같은 예방 중심의 건강 교육도 진행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약 복용과 식습관을 점검한다. 백신 접종, 건강검진, 생활습관 교육 등도 간호사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다. 간호사는 삶의 여러 순간에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파수꾼이다.

#### 4.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간호사가 병원에만 있는 시대는 지났다. 간호사는 자신의 관심과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와 함께 수술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응급실 간호사는 위급 상황에 빠진 환자를 빠르게 분류하고 긴급 처치를 제공한다. 소아간호사는 어린 환자에게 맞춤형 간호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간호사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동시에 돌본다. 정신건강간호사, 산업간호사, 감염관리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연구간호사, 국제보건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간호사는 활약하고 있다. 이는 간호가 단일한 직업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직업임을 의미한다.

#### 5.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직업

간호사는 한번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새로운 질병, 치료법, 의료장비가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필수적인 직업이다. 많은 간호사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전문 자격을 취득해 커리어를 확장한다. 또한 실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환자의 권리 보호, 감정노동 등에 대한 고민도 많기 때문에 정신적 성장 또한 요구된다. 간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직업이다.

#### 6. 마무리하며

간호사는 단순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모두 함께하는 전문가이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사회의 건강을 지키며, 수많은 생명을 지탱하는 존재가 바로 간호사이다. 중고등학생 여러분이 진로를 고민할 때, 사람을 돕고 싶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간호사라는 직업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간호 칼럼 2]

# 나를 지키는 간호 지식

일상 속 응급처치와 건강 팁

세종우리누리 15기 멘토 간호학과 차 지 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응급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친구가 코피를 흘리거나, 가족이 식사 중에 기침을 하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 혹은 캠핑 중 뜨거운 물에 손을 덴 일도 흔히 일어난다. 이럴 때 우리가 간단한 응급처치 지식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다. 간호 지식은 병원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연령대 상관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와 건강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출혈 시 응급처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응급 상황 중 하나는 출혈이다. 운동 중 넘어지거나,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주방에서 칼에 베이는 등 출혈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한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상처 부위를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압박해야 한다. 출혈이 심하다면 상처나 심장보다 높은 곳에 손이나 발을 위치시켜 지혈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코피가 날 경우에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콧방울을 손가락으로 10분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이는 피가 목으로 넘어가 기도를 막을 수 있어 위험하다.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거나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sup>1)</sup>

## 2. 화상 시 응급처치

뜨거운 물, 다리미, 불판 등은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상의 원인이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화상을 입은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최소 10~20분간 식혀야 한다.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것은 오히려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물집이 생겼다면 일부러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로 덮은 뒤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알로에 젤이나 화상 연고는 초기 응급처치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도 이상의 화상(물집이 많거나 넓은 부위)은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sup>2)</sup>

## 3. 기절했을 때의 대처법

갑작스럽게 친구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다면, 주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을 걸어보자. 반응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중고등학생도 기본적인 가슴압박을 익혀두면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호흡이 있다면 옆으로 눕히고, 주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sup>3)</sup>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본』, 대한적십자사 출판부, 2021.

2)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와 함께 배우는 생활 속 응급처치』, 2022.

3)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인/헬스아웃 - 일상 속 건강 팁(온라인 건강정보)」, 2023.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어른이나 선생님,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 4.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기도에 음식물이 걸린 상황으로,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먼저 기침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기침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스스로 기침을 하게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침도 못하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며 호흡 곤란을 보인다면,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배꼽 위, 명치 아래 부위를 강하게 밀어 올려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밀어내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익히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익혀두었다면 큰 도움이 된다.

#### 5. 감기, 두통 등 일상적인 증상 대처법

단순 감기, 두통, 복통 같은 증상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약을 복용할 때는 용법을 잘 지켜야 하며, 과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항생제는 감기에 효과가 없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면 내성균을 만들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약을 먹을 때는 공복 여부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도 체크해야 하므로, 반드시 설명서를 읽고 복용해야 한다.

#### 6. 일상 속 건강관리 팁

건강은 좋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손 씻기,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습관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외출 후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의 원인이 된다. 패스트푸드보다 채소,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며 하루에 물을 6~8잔 정도 마시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시험이나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심리적인 안정도 건강의 중요한 축이다.

우리는 전문 간호사는 아니지만, 작은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간단한 응급처치 지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간호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다. 누군가가 아플 때, 쓰러졌을 때, 다쳤을 때 그 곁을 지키는 것은 꼭 병원에 있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간호사가 되어보는 것, 그것이 가장 따뜻하고 실용적인 간호의 시작이다.

#### 참고문헌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본』, 대한적십자사 출판부, 2021. <https://www.redcross.or.kr/edu/firstaid.do>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와 함께 배우는 생활 속 응급처치』, 2022. <https://www.koreanurse.or.kr/>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인/헬스아웃 - 일상 속 건강 팁(온라인 건강정보)」, 2023. <https://health.snuh.org/>



**보인다! 10.0**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4부

세종우리누리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학교  
(2018~2025)



## 1 세종우리누리\* 조직 및 운영 사업 내용

\*세종우리누리: 세종시 고교를 졸업했거나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교육봉사 멘토단

### ▶ 세종우리누리 조직 개요

- (구성 시기) 2018년 5월 창립
- (창립 기치) 선배 없는 지역 사회 후배의 선배가 되어주기
- (슬로건) 함께하는 우리, 우리누리
- (창립 목적) 도움을 받은 이가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이가 되는 선순환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타적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함
- (대표) 2018~2020년(1~6기) 정OO, 2021~2022년(7~10기) 양OO, 2023년(11~12기) 김OO, 2024~2025년(13~16기) 장OO

### ▶ 세종우리누리 운영 사업 내용

- (2018년 1~2기)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sup>1)</sup> 운영(12월~'19.2월, 총 48명)
- (2019년 3~4기)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 운영(7~8월, 12월~'20.2월, 총 106명)
- (2020년 5~6기)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7~8월, 12월~'21.2월, 총 34명)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sup>2)</sup> 운영(7월)
- (2021년 7~8기)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7~8월, 12월~'22.2월, 총 165명)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운영(7월)
- (2022년 9~10기)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7~8월, 12월~'23.2월, 총 34명)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운영(7월)
- (2023년 11~12기)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7~8월, 12월~'24.2월, 총 39명)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7월, 총 950명)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 및 특강(7월, 12월, 총 239명)
  - 제시문 기반 면접 멘토링 운영(10월, 총 29명)

1) 방학 기간 동안 진로·진학에 대한 선배의 조언 및 안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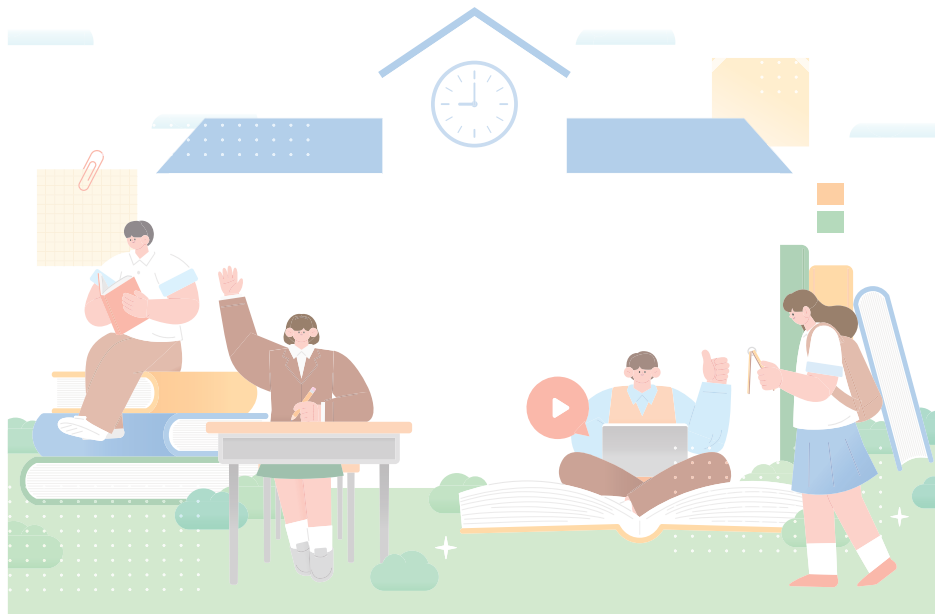
2)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세종우리누리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 및 체험 부스

● (2024년 13~14기)

- 고교 연합 동아리 학술제 「아고라 프로젝트<sup>3)</sup>」(7월, 총 45명)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7~8월, 12월~'25.2월, 총 56명)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7월, 총 900명)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 및 특강<sup>4)</sup> (7월, 12월, 총 308명)
- 제시문 기반 면접 온라인 멘토링(10월, 총 7명)
- 학교로 찾아가는 교양특목 멘토링<sup>5)</sup> 및 특강 운영(12월, 총 349명)

● (2025년 15~16기)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7~8월, 총 33명)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7월, 총 531명)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 및 특강(7월, 총 67명, 12월 예정)
- 대입 면접 온라인 멘토링 예정(9월, 총 44명)
- 진로·진학통합안내서 「보인다! 10.0」(세종 청소년 생활백서)<sup>6)</sup> 개발 및 배부 예정(10월 예정)
- 학교로 찾아가는 교양특목 멘토링 및 특강 운영 예정(12월 예정)



3)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학술 동아리 학술제(진로 연계 논문 발제)

4) 학교가 신청하는 주제에 따라 세종우리누리가 특강 및 소규모 상담 진행

5) 대입 예정인 고3 학생 대상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 과목의 특성, 독서 방법, 글쓰기 법 안내

6) 중고등학생 대상 과목별 공부법, 인문, 사회과학, 과학 칼럼, 대학 학과 소개 등 진로·진학안내서

## 2 세종우리누리 운영 사업의 참여 학교

### ▶ 세종우리누리 운영 사업별 참여 학교(2018~2025)

| 구분   | 프로그램             | 참여 학교명           | 참여 수(명) |
|------|------------------|------------------|---------|
| 2018 | 진로·진학 겨울 방학중 멘토링 | 소담고              | 10      |
|      |                  | 도담고              | 4       |
|      |                  | 보람고              | 6       |
|      |                  | 양지고              | 28      |
| 2019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 | 다정고              | 15      |
|      |                  | 두루고              | 28      |
|      |                  | 소담고              | 14      |
|      |                  | 양지고              | 18      |
|      | 진로·진학 겨울 방학중 멘토링 | 고운고              | 4       |
|      |                  | 다정고              | 8       |
|      |                  | 보람고              | 8       |
|      |                  | 양지고              | 11      |
| 2020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
|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    | 고운고              | 5       |
|      |                  | 다정고              | 8       |
|      |                  | 보람고              | 8       |
|      |                  | 양지고              | 11      |
|      |                  | 두루고              | 1       |
|      |                  | 새롬고              | 1       |
| 2021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
|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 | 고운고              | 1       |
|      |                  | 고운중              | 3       |
|      |                  | 금호중              | 3       |
|      |                  | 다정고              | 6       |
|      |                  | 다정중              | 3       |
|      |                  | 도담고              | 5       |
|      |                  | 두루고              | 5       |
|      |                  | 두루중              | 6       |
|      |                  | 반곡중              | 1       |
|      |                  | 보람고              | 2       |
|      |                  | 보람중              | 2       |
|      |                  | 새롬고              | 9       |
|      |                  | 새움중              | 3       |
|      |                  | 세종고              | 1       |
|      |                  | 세종국제고            | 7       |
|      |                  | 세종대성고            | 8       |

| 구분   | 프로그램             | 참여 학교명           | 참여 수(명) |
|------|------------------|------------------|---------|
| 2021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 | 세종여고             | 5       |
|      |                  | 세종예술고            | 1       |
|      |                  | 세종장영실고           | 3       |
|      |                  | 소담고              | 1       |
|      |                  | 소담중              | 3       |
|      |                  | 아름고              | 4       |
|      |                  | 아름중              | 5       |
|      |                  | 양지고              | 9       |
|      |                  | 양지중              | 1       |
|      |                  | 종촌고              | 3       |
|      |                  | 종촌중              | 9       |
|      |                  | 한솔고              | 2       |
|      |                  | 한솔중              | 18      |
|      |                  | 해밀고              | 2       |
|      |                  | 고운고              | 1       |
|      |                  | 고운중              | 2       |
|      |                  | 다정고              | 1       |
|      |                  | 다정중              | 1       |
|      |                  | 도담고              | 1       |
|      |                  | 도담중              | 1       |
|      |                  | 두루중              | 6       |
|      |                  | 반곡중              | 3       |
|      |                  | 새롬고              | 1       |
|      |                  | 새롬중              | 2       |
|      |                  | 세종여고             | 1       |
|      |                  | 세종장영실고           | 2       |
|      |                  | 아름고              | 1       |
|      |                  | 어진중              | 2       |
|      |                  | 한솔고              | 1       |
|      |                  | 한솔중              | 8       |
| 2022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
|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    | 고운고              | 1       |
|      |                  | 고운중              | 2       |
|      |                  | 다정고              | 1       |
|      |                  | 다정중              | 1       |
|      |                  | 도담고              | 1       |
|      |                  | 도담중              | 1       |
|      |                  | 두루중              | 6       |
|      |                  | 반곡중              | 3       |

| 구분   | 프로그램                    | 참여 학교명           | 참여 수(명) |
|------|-------------------------|------------------|---------|
| 2022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           | 새롬고              | 1       |
|      |                         | 새롬중              | 2       |
|      |                         | 세종여고             | 1       |
|      |                         | 세종장영실고           | 2       |
|      |                         | 아름고              | 1       |
|      |                         | 어진중              | 2       |
|      |                         | 한솔고              | 1       |
|      |                         | 한솔중              | 8       |
| 2023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950     |
|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 및 특강 | 해밀고              | 24      |
|      |                         | 보람고              | 15      |
|      |                         | 한솔고              | 200     |
|      | 제시문 기반 면접 멘토링           | 다정고              | 1       |
|      |                         | 세종대성고            | 2       |
|      |                         | 도담고              | 6       |
|      |                         | 두루고              | 4       |
|      |                         | 보람고              | 2       |
|      |                         | 새롬고              | 4       |
|      |                         | 세종고              | 1       |
|      |                         | 세종여고             | 3       |
|      |                         | 양지고              | 2       |
|      |                         | 종촌고              | 3       |
|      |                         | 한솔고              | 1       |
|      | 진로·진학 방학중 멘토링           |                  | 39      |
| 2024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900     |
|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        | 다정중              | 2       |
|      |                         | 반곡고              | 1       |
|      |                         | 보람중              | 1       |
|      |                         | 새롬고              | 1       |
|      |                         | 세종대성고            | 2       |
|      |                         | 소담고              | 4       |
|      |                         | 양지고              | 2       |
|      |                         | 종촌고              | 2       |
|      |                         | 집현중              | 4       |
|      |                         | 한솔중              | 1       |
|      |                         | 고운중              | 1       |
|      |                         | 다정고              | 4       |
|      |                         | 다정중              | 2       |
|      |                         | 두루중              | 1       |
|      |                         | 반곡고              | 1       |

| 구분   | 프로그램                    | 참여 학교명           | 참여 수(명) |
|------|-------------------------|------------------|---------|
| 2024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        | 보람중              | 1       |
|      |                         | 새롬고              | 6       |
|      |                         | 세종대성고            | 1       |
|      |                         | 소담고              | 3       |
|      |                         | 양지고              | 6       |
|      |                         | 양지중              | 1       |
|      |                         | 종촌고              | 4       |
|      |                         | 종촌중              | 2       |
|      |                         | 한솔중              | 1       |
|      |                         | 해밀고              | 1       |
|      |                         | 해밀중              | 1       |
|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 및 특강 | 보람고              | 3       |
|      |                         | 세종대성고            | 16      |
|      |                         | 양지고              | 90      |
|      |                         | 집현중              | 30      |
|      |                         | 집현중              | 120     |
|      |                         | 한솔고              | 4       |
|      |                         | 반곡고              | 15      |
|      |                         | 세종늘벗학교           | 30      |
|      | 제시문 기반 면접 멘토링           | 세종대성고            | 1       |
|      |                         | 양지고              | 2       |
|      |                         | 종촌고              | 3       |
|      |                         | 해밀고              | 1       |
|      | 아고라 프로젝트                | 아름고 동아리          | 24      |
|      |                         | 양지고 동아리          | 17      |
|      |                         | 한솔고 동아리          | 4       |
|      | 학교로 찾아가는 교양톡톡 멘토링       | 종촌고              | 30      |
|      |                         | 새롬고              | 319     |
| 2025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부스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531     |
|      | 진로·진학 여름 방학중 멘토링        | 금호중              | 1       |
|      |                         | 다정중              | 1       |
|      |                         | 도담중              | 2       |
|      |                         | 두루중              | 2       |
|      |                         | 반곡고              | 1       |
|      |                         | 반곡중              | 1       |
|      |                         | 보람고              | 6       |
|      |                         | 보람중              | 2       |
|      |                         | 새롬고              | 3       |
|      |                         | 새롬중              | 2       |

| 구분 | 프로그램                    | 참여 학교명          | 참여 수(명) |
|----|-------------------------|-----------------|---------|
|    |                         | 세종대성고           | 1       |
|    |                         | 소담고             | 1       |
|    |                         | 소담중             | 4       |
|    |                         | 아름고             | 1       |
|    |                         | 양지고             | 1       |
|    |                         | 종촌고             | 2       |
|    |                         | 한솔고             | 2       |
|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 및 특강 | 종촌고             | 5       |
|    |                         | 보람고             | 45      |
|    |                         | 세종여고            | 17      |
|    | 대입 면접 온라인 멘토링           | 고운고             | 4       |
|    |                         | 다정고             | 3       |
|    |                         | 도담고             | 1       |
|    |                         | 두루고             | 3       |
|    |                         | 보람고             | 6       |
|    |                         | 소담고             | 5       |
|    |                         | 아름고             | 1       |
|    |                         | 양지고             | 3       |
|    |                         | 종촌고             | 1       |
|    |                         | 한솔고             | 2       |
|    |                         | 그외              | 15      |
|    | 보인다10.0(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제작 | 10월 중고등학교 배부 예정 |         |









보인다! **10.0**

## 세종 청소년 생활백서

### 참여 멘토

- 김지우
  - 김현지
  - 박소운
  - 배민서
  - 윤지은
  - 윤태원
  - 이원진
  - 이채은
  - 장동휘
  - 정중연
  - 차지안
- 담당연구사 : 진로교육원 진학지원부 **오은정**

본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저작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를 금합니다.

